

지역을 만난 노동: 희망씨 10년의 기록



# 지역을 만난 노동 희망씨 10년의 기록

사단법인 희망씨 엮음



## 책을 펴내며

노동조합과 지역이 만난다는 것, 다소 낯설고 추상적이다. 일터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과 삶의 터전인 '공간'이 병렬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의 낯섦이고, 어찌 보면 운동적 성격이 다른 부문끼리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수직적 구조의 조직과 수평적 연대체에 가까운 지역의 소통방식도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거기에 운동의 방향성까지 덧붙여져 '노동조합의 지역연대·나눔연대'에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등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 불평등은 어떤 운동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라는 가치를 활동의 지향에서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절히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조직적 규모가 크고 대중적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책무다.

2023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노회찬재단이 조사한 '국민불평등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이는 명확히 드러났다. 국민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불평등 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받는 지금, 스스로 일터 내에서 위계를 가르고 그 위계로 인해 국민에게 외면받는 노동조합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연대'라는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희망씨 10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의 인식과 활동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이 노동조합 활동에 반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이런 변화된 활동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주체로 만들고 동시에 조직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변화의 노력(들)에 맞물려 노동조합 내부에서 '우리 것' '우리 들끼리의 연대'가 아닌 다양한 연대와 더불어 살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지역사회 운동노조'를 표방하고 전 조직적으로 조합원 실천을 끌어오고 있는 희망연대본부, 플랫폼노동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지역본부로서는 최초로 생활문화위원회를 두며 사회 대전환을 위

해 지역에서 나눔과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개별 노동자들을 삶터에서 조직하는 방법으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안산의 '좋은이웃' 사례가 그것이다.

그리고 노사 공동 재단을 설립해 사회연대를 실천하는 희망철도 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기금을 조성해 사회연대활동을 하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10년 동안 꾸준히 전개하고 다양한 노동조합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씨를 소개하며, 희망씨와 함께하고 있는 노동조합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희망씨 사례 파트에서는 희망씨와 함께 지역에서 다양한 실천을 했던 노동자들의 수기도 함께 엮었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 언급하지 못한 많은 노동조합과 사례가 있다. 금융노조와 금융사용자가 만든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부문 노사가 조성한 공공상생연대기금, 화섬식품노조의 사회연대위원회 사례가 그것이다. 그리고 많은 노동조합이 노사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체 기금을 조성해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나눔과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노동조합의 사례를 모두 신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기금 분배와 후원만이 아닌 '노동자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실천 사례를 담으려 노력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노동조합의 지역활동 관련 Q&A를 실어 지역연대, 생활문화연대, 나눔연대로 불리는 다양한 지역연대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들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노동조합이 사회연대를 깊게 고민하고 다양한 실천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부족하지만 이런 고민을 책으로 엮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아낌없이 글을 보내 주신 저자들과 희망씨와 함께하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단법인 희망씨 이사장 서광순



## 연대하는 노조가 희망이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세상이 어두울 땐 노동이 희망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동운동은 권위주의 국가권력에 맞서 노동계급과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 왔다. 민주노동운동의 투쟁과 희생으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커졌고 민중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민주노동운동은 우리 사회 진보에 기여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박빙의 승리로 출범한 정권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고 외치며 사회·경제 민주화는 물론 정치적 민주화의 성과마저 되돌리려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무능과 비상식적 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기 시작했는데 20%대 저조한 지지율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그렇게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국민의 뱃속 깊이 스며 있는 재벌 혐오감만 생각했는데,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도 현실이 됐다. 물론 보수정치세력과 극우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조작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력과 언론 탓만 한다고 널리 확산한 노동조합 혐오감이 쉽사리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노동조합이 더 이상 여성, 청년, 미조직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시민들은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믿어 왔는데, 이젠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사회적 약자 이해대변과 불평등 완화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운동이 다시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길은 없을까?

이 책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담벼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사회공동체로 눈을 돌려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호흡하며 삶의 조건과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 책은 희망연대노조 등 노동조합들이 지역사회와 만나 연대하는 사례들을 엮어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희망연대노조 조합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방문해 도배와 페인트 작업, 전선 정리와 간단한 수선작업 등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

희망연대노조는 사단법인 희망씨를 설립해 사회연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지역사회 가정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물론 청소년 교육문화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위기가정지원사업, 네팔의 포카라학교 건립 및 운영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라이더유니온, 희망철도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례들도 소개돼 있다.

민주노동운동이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을 고집하는 자본가들은 물론 반노동적 국가권력과 보수 언론에 맞서 전체 노동계급과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소통하고 연대하며 가슴에 울림을 줘야 한다. 사회적 연대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주노동운동이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생존전략이 됐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꾸려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좋은 길벗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 책을 추천한다.

## 노조가 사업장 담을 넘을 때 세상이 변한다

박래균 4.16재단 상임이사

예전에 희망연대노조 정기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한 연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눈에 딱 봐도 노동운동과 무관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게 기억에 남아 있다. 지역의 어린 이집부터 지역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그야말로 이웃 잔칫집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

두 번째로 기억나는 장면은 비정규 노동자가 서울시청 근처 광고판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는 걸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비정규직은 사측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당하는 설움이 더 아프다고 말하는 걸 들어왔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운동노조' '지역연대노조'란 말을 듣게 됐다. 희망

연대노조는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연대 사업을 벌이고, 외국에까지 지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거기에 희망씨라는 사단법인도 만들어 본격적으로 연대사업을 하고 '청소년 희망공간 아띠'를 만든다는 얘기도 알게 되어 후원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노동조합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였고, '이런 노조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였다. 노조가 사업장 담장을 넘어서 지역으로 나온다는 걸 실감하는 사례들이었다. 이런 노동조합이 대세가 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번에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례집 원고를 미리 받아서 보게 됐다. 내가 모르던 사례까지 다양한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번 사례집이 지역사회와 연대를 고민하는 많은 노동조합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삶을 돌보고, 가난한 나라 민중을 위한 연대사업을 해 나가는 일, 시작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생한 사례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노동조합이 변하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강화하는 일,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바꾸는 일, 대안사회

를 위한 실천을 촉진하는 일, 국제연대를 통해 국제질서를 바꾸는 일도 꿈꿀 수 있다. 기후위기까지 대안적 의제로 삼아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라면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겠는가. 이 사례집이 독립되고 지지받지 못한 노동조합의 활로를 열어 가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태일 열사의 풀빵정신을 실천해 가는 노동조합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래서 지역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나라가 변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회운동노조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CONTENTS

책을 펴내며

추천사

### Chapter 1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만남!

#### 지역을 만난 노동,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례

- 19 대안공동체를 그리며 • 권순부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 30 노동과 지역의 만남, 라이더유니온 '라눔'활동 • 박정훈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 41 내가 있어 우리가 있다 • 박선봉  
- 민주노총 서울본부
- 52 함께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 • 조은성  
- 금속노조 경남지부
- 59 새로운 상상, 새로운 도전 • 최은미  
- 안산·시흥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 70 사회연대를 실천하는 공공철도를 꿈꾸며 • 김용식  
- 희망철도재단
- 78 차별을 이기는 희망, 우분투 • 이혜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90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이제 생존이다! • 김진역

104 지역과 노동의 만남 • 나상운

### Chapter 2 노동과 지역을 잇다, 희망씨 10년

121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희망씨 • 김은선

#### 작은 나눔, 일상의 행복: 나눔활동 참여 노동자 수기

- 163 가슴이 따듯해지는 노동조합 활동! 멋지지 않나요? • 김은선
- 167 '희망씨' 덕분입니다 • 여민희
- 171 "희망씨는 제2의 삶이죠" 미등록자녀 아버지 이야기 • 이은선
- 175 일상에서 작은 나눔의 행복 • 김종덕
- 180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의 가슴 뜨거워지는 연대이야기 • 손윤경
- 183 5년간 진행된 전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소감 • 박장오
- 186 도움에서 나눔으로 • 김영이
- 192 지원을 넘어 자립으로! 네팔과 함께하는 나눔연대 • 변다영
- 198 딜라이브지부 유급 사회공헌시간 '털모자 뜨기' • 이미경
- 202 나를 바꾸어 준 희망씨 • 박채은
- 205 희망씨에 입사해 보니 어떠니? • 박예나


### Chapter 3 부록

211 희망씨 10년의 역사

216 Q&A로 맛보는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Chapter

# 01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만남! 





## 지역을 만난 노동,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례



## 대안 공동체를 그리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권순부\*

### 희망연대노조 출범: 대안 공동체를 그리며

2009년 12월 '지역사회운동노조'를 기치로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노동조합 명칭이 대개 소재 지역과 주요 업종을 담아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가겠다는 선명한 방향을 내보인 명명이다.

지역사회운동노조란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사회 영역과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고, 사회변화의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운동노조는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인데, 희망연대노조가 꾸준히 내세운 두 가지 ① “더불어 사는 삶, 아래로 향하는 운동” ② “사업장의 담을 넘어, 지역과 함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사회연대국장



희망연대본부\_가족캠프

이러한 맥락에서 희망연대노조는 일터에서 펼쳐는 운동(임단투로 대표되는 작업장투쟁)은 기본으로 하되, 더 나아가 우리의 삶터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삶의 공간인 지역에서, 이웃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을 생활문화연대사업이라고 불렀다. 사회연대사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본래 희망연대노조 생활문화연대사업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 조합원들의 삶 속(재생산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사업으로 많은 조합원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중소·영세 미조직 청년노동자의 조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

## 무엇을 했나

희망연대노조의 생활문화연대사업은 크게 나눔연대·사회공헌사업, 지역연대사업, 대안의제사업, 생활문화연대사업, 국제연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동시에 둘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이 많으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 ① 나눔연대·사회공헌사업

#### - 노사공동 사회공헌기금

: 2011년 씨앤엠지부(현 딜라이브지부)가 임단협을 통해 노사공동 사회공헌기금(1억5천만원)을 쟁취했다. 사회공헌기금 쟁취를 교섭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이를 관철한 것은 조합원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공헌기금을 쟁취하는 교섭 전통은 10년 넘게 계승됐고, 기금의 규모도 곱절로 커졌다. 마찬가지로 희망연대노조로 조직된 티브로드·SK브로드밴드·LG헬로비전·HCN 등 동종업계 노동자들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사업단

: 조합원들은 수도권 각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지역단체들을 찾아가 만나며 사회공헌사업단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아동청소년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고 찾아온 노동조합을 낯설어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공헌사업단은 2012년 서울의 강동·성북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강북·광진·구로·마포·송파·용산, 경기도 남양주·의정부, 전국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 등 많은 지역과 부문으로 확산했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희망연대노조는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 ② 지역연대사업

-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실천

: 용산 화상경마장 저지 투쟁, 비정규직 없는 영등포 만들기 공동행동, 은평전략조직화사업단 ‘우리동네 노동자 인권찾기모임’, 서울남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등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연대 활동에 동참했다.

- 지역사회연대위원회

: 2023년 기준으로 희망연대본부에는 20여개 지부가 있다. “사업장의 담을 넘어, 지역과 함께”라는 희망연대본부의 가치를 공유하는 조합원들이 지부의 틀을 넘어 자신들의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국 6개 지역(경기남부·의정부·대전·전주·대구·강릉)에 사회연대위원회를 만들었다. 6개 지역 사회연대위원회는 오랜 기간 ‘지역모임’ 형태로 지역사회와 호흡을 맞추어 오다 2023년을 기해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여 대안사회의 동력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회연대위원회로 전환·출범했다.

## ③ 대안의제사업

각자도생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서, 공공의 권익을 늘리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제에 관한 사업으로 비교적 최근 펼치기 시작한 사업 범주다. 반차별 의제와 기후정의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22년에는 두 가지 의제를 조합원들과 공유·공감하기 위해 전 조합원 대상 카드뉴스를 매달 발행했고, 두 차례 교육지도 발행했다. 4월과 7월을 각각 기후정의 실천의 달, 반차별 실천의 달로 상정하고 주제강연, 영화제, 전 조합원 실천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쳤다.

## ④ 생활문화연대사업

- 다양한 체험 활동

: 조합원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실천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합동 야유회, 장애·비장애통합나들이,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장



담그기, 전임생활 마친 현장 간부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명상힐링캠프, 아버지학교, 조합원 가족캠프 등 조합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쳤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에서 관계 맺은 다양한 단위기관을 통해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정과 돌봄기관 등을 소개받아 조합원들이 찾아가 도배, 장판 교체, 부분 페인트칠, 기타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케이블·통신 노동자인 조합원들은 케이블 정리 및 간단한 수선 등 노동자로서 자신이 익힌 기술로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큰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 남양주지역 레인보우 힐링, 어깨동무 캠프

: 남양주지역 연대단위와 함께 진행하는 ‘레인보우 힐링, 어깨동무 캠프’는 희망연대본부 조합원 가정과 이주배경 가정, 발달장애인 가정 이 이틀간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하게 공감을 넓히는 행사다.

- 소모임 운영

: 다양한 소모임을 지원한다. 각 지부 및 지역 시민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그 결실로 김장을 담가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기도 한다. 성평 등·장애·이주노동·청소년 노동 등을 공부 하고 영화도 함께 보며 조합

원들의 ‘노동인권’을 높이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시대를 바꾼 노동운동의 현장들”을 찾아 지역운동역사탐방에 나섰다.

⑤ 국제연대사업

국경을 넘나들며 탐욕을 추구하는 자본에 맞서 다른 세상을 위한 민중들의 연대교류를 위해 국제 노동자 연대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 네팔연대

네팔 GDP의 25%가량이 외국에서 본국으로 부친 돈일 만큼 네팔은 이주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나라다. 비전문취업(E-9)비자를 통해 한국에 오는 16개국 노동자들 중 네팔 노동자 비중이 상당히 크다.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자운동을 하다 본국으로 추방되거나 귀국한 활동가들이 많았다. 이렇듯 뜻있는 활동가들이 모여 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연대센터(Solidarity Center of Nepalese Migrant Workers, SCENEMIGWO)를 만들었다.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CENEMIGWO)와 협력해 희망연대노조는 포카라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 개교 10주년을 맞는다. 뿔뿔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에는 저금통을 모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든든한 희망씨 동지들의 협력에 힘입어 다양한 아동지원사업에 동참한다.

해마다 11월이면 희망씨와 함께 네팔나눔연대여행단을 꾸려 떠난다. 소속과 배경이 다양한 노동자들이 네팔에 가서, 네팔 민중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노력하는 체험학습이라고도 하겠다. 다만 현지 활동가들의 생업과 국내 정치적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네팔이 주노동자연대센터의 활동이 매우 위축된 점은 과제로 남는다. 국제연대사업, 특히 저개발국가를 배경으로 한 연대사업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원칙과 목표를 최대한 명확하게 수립하고 돌입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 - 일본연대

일본 노동운동은 1989년 이후 본격적으로 우경화됐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나카마유니온을 주요한 파트너로 한일연대를 이어 오고 있다. 10월께 열리는 오사카 단결축제에 즈음하여 한일연대탐방단을 파송한다. 일주일간의 여정에서 조합원들은 노동자 집회 참석, 나카마유니온과 교류회, 단결축제 참가자들과 간담회, 공립학교에 설치된 민족학급 연대방문, 우토로 평화기념관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한다. 이 밖에 양측 총회나 공동투쟁결의대회에 연대사를 전하는 등 일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 ⑥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 설립

2013년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눔연대법인을 세웠다. ‘연대국’처럼 희망연대노조 체계 안에서 사업을 펼치는 방식의 장점은 분

명히 있다. 조합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사업의 위상이 선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나눔연대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벌이고자 했다. 우리 조직은 연대사업을 조직투쟁의 부수적·보조적 과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긴박한 조직투쟁이 펼쳐질 때면 전 조직적 역량이 집중되기 마련임을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둘째,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연대에 함께하기를 바랐다. 오늘날 희망씨가 지역과 업종을 넘나들며 다양한 노동조합 및 조직들과 폭넓게 변화를 만드는 것을 보며 당시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한다.

희망씨는 독립된 기구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씨와 희망연대본부의 접촉면은 무척 넓다. 본부는 희망씨와 다양한 사업을 함께 꾸릴 뿐 아니라, 조직운영까지 함께 고민한다. 희망씨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부는 그 역할을 이어 가려 한다.

## 나가며: 그래도 가야 할 길

조합원들은 연대사업을 통해 세상과 만난다. 조합과 함께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얻는다. 종일 땀 흘려 가며 지역아동센터를 수리한 날, 먼지를 흠뻑 뒤집어쓰고도 그렇게 맑은 웃음을 띤다. 생활문화연대사업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조합원은 가족에게 “노조에서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다”며 지지받은 경험을 나누어 줬다. 이런 경험은 아주 힘이 세서, 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어지간한 외부요인을 물리친다. 어떤 정량적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종류의 가치를 우리 조직에 더한다. 그렇기에 연대사업은 조직강화사업이다.

연대사업은 노동조합의 생존전략이다. 2014년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씨앤엠이 비정규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하겠다고 나섰을 때,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들불처럼 일어나 노동자를 지켜 줬다. 생존권투쟁이라 마땅히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노동자를 괴롭히는 회사라면 해지하겠다고 가입자의 이름으로 으르고 나섰다. 지역에서 동고동락하던 사이인지라 성심으로 우리 투쟁에 함께해 줬고 결국 승리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이렇듯 연대사업은 실리적으로도 조직에 보탬이 된다. 그러나 손익을 타산하고서야 비로소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떨 때는 주판을 과감히 엮고서라도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으리라. 노동조합운동의 의의와 전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연대사업에 대한 고민을

비켜 갈 수는 없을 듯하다.

각자도생이 오늘의 사회를 짓누르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세상에는 돈 말고 다른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에 우리는 싸여 있다. 그것을 주변에 확산한다는 것은 마치 무망한 일처럼 보여 언제부턴가 노력조차 멈추어 버린 건 아닐지.

우리 모두는 너무도 다르기에 연대사업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똑같다면 함께한다는 일에 무슨 각별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계를 향기롭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대사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 노동과 지역의 만남, 라이더유니온 '라눔' 활동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 연대가 만든 연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임과 조합원 확대사업을 하려고 하니 앞길이 막막했다.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건 배달노동자들이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이었다는 점이다. 상점과 손님의 주소는 물론 동네 신호체계와 골목길, 지형 지물 등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건의 배달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는 주거지와 일터가 일치했다. 덕분에 비록 소속된 배달업체가 다르더라도 뭉칠 가능성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풀뿌리 조직과 노동조합이 만날 수 있었다. 라이더유니온 초기 조합원들이 많이 살고 있던 강서구에서 지역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조

\*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라이더유니온

직화 사업을 하는 모델이 만들어졌다. 돈과 공간이 없던 라이더유니온에 강서구 노동복지센터가 공간과 예산, 지역의 자원을 노동조합에 지원했다. 강서양천민중의집은 라이더유니온 강서지회의 사무실이 돼 줬다. 이후 다양한 사업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한 겹 두 겹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박서희 팀장이 희망연대노조 소속 케이블 인터넷 방송 설치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라이더들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음식은 강서 아이쿱생협이 준비하고 라이더들은 홀몸어르신

이나 청소년들에게 배달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배달하느라 집회는 물론 조합 행사에도 나오지 않는 조합원들이 자원활동을 한다고 하면 나올까? 선불리 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떨리는 마음으로 조합원들에게 자원활동을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가히 폭발적 반응이 돌아왔다. 지금까지 밥과 온갖 물품을 준다고 해도 5명이 채 모이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고 오히려 조합원들이 시간을 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무려 10명 넘는 조합원이 모였다. 집회나 각종 조합 행사에서 항상 수동적으로 앉아 있던 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 회원들이 만든 음식을 신속하게 포장하고, 배달지를 배분하고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입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말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이렇게 포장해야지. 이런 건 우리가 베테랑이야.”  
“거기 금방 갔다 오니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프로잖아.”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뽐내는 모습이 싫지 않았다. 살면서 배달노동을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자원활동 기관에서도 배달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렸던 일을 30분 만에 끝내 버리는 라이더들을 보고 놀라워했다. 도시락에는 라이더유니온의 자원활동을 소개하는 스티커가 부착됐다. 자원활동

이 끝나고 어땠는지 조합원들에게 물어봤다.

“3천원짜리 배달할 때랑 자원활동 할 때랑 하는 일은 똑같은데, 느낌은 완전히 다르네요. 막 쫓기는 느낌도 없고. 돈 많이 벌었을 때도 보람을 느끼긴 하는데, 뭔가 다른 보람과 느낌이 들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조합원들 스스로 찾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2021년 5월 10일 첫 자원활동이 무사히 끝났다. 지역이 라이더유니온이라는 신생 노동조합에 내민 연대의 손길이 더 큰 연대로 돌아왔다.

## 확장

강서에서의 자원활동 사진과 소식을 간부 텔레그램방과 노조 카페 등에 올리자 우리 지회에서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집회와 시위,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조합원들의 ‘욕망’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욕망은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다.

조합 탈퇴를 고민하던 조합원이 자원활동 때문에 다시 활동하겠다고 연락해 오기도 하고, 조합비를 내지 않던 조합원이 다시 조합비를 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겼다. 수요는 분명했다. 이제 라이더들을 잘



모집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찾는 게 관건이었다. 노조 단독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해야 했다.

자원활동을 확장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었다. 기관과의 약속은 곧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게 헌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별적이고 유동적으로 일하는 조합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했다. 자칫 잘못하면 간부들이 책임지는 자원활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건 자원활동이 아니라 노조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했다. 심지어 신의를 지켜야 하는 부담스러운 업무였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했고 간부들은 조합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에 그쳐야 했다. 자원활동이 노조간부의 '책임'과 '업무'가 되는 순간 실패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다. 송구하지만 배달노동자와 조합원이 처한 조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활동 모델을 먼저 제시한 후 기관에 양해를 구했다. 주기는 월 1회로 정했고, 배달노동자들이 일을 쉬는 시간대인 2~5시 사이에 끝날 수 있는 정도의 양만큼 배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문이 엄청나게 밀리는 폭우·폭설 등이 내리는 날은 연기할 수 있

어야 했다. 감사하게도 이 까다로운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인 기관 덕분에 서울 마포구·중구·광진구·강남구, 경기도 등으로 조금씩 자원활동을 확대할 수 있었다.

## 노동합의 일상 활동으로 자리 잡다

자원활동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원 모임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참여란 중앙에서 기획한 기자회견에 문제의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출연하는 것 정도였다. 물론 열성적인 소수의 조합원들이 활발히 조합 활동에 참여했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보다 만나기 어려웠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오토바이 대행진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게 조합원이 모이는 주요한 형태였다.

우리 조합에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명절 같은 행사로 읍소해야 겨우 150~200명 정도가 모였다. 이것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일상적으로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라이더들에겐 출근할 때 반드시 입장해야 할 공장 출입구도, 함께 밥을 먹는 회사 구내식당도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라이더들이 휴식을 취하는 2시나 3시에 밥을 먹는 '밥상모임'을 해보았다. 어차피 밥 먹을 거 조합비로 같이 밥이나 먹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밥 먹자고 매번 시간을 내지 않았다. 먹는 사

밥만 먹었다. 의료지원, 상담사업, 교육,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좋지 않았다. 현금을 몇십 만원 뿌리는 게 아니라면 애매한 혜택을 준다고 조합원들이 오지는 않았다. 모였을 때 의미가 있어야 했다. 자원활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자원활동 전후로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조합의 중요한 소식을 공유했다. 자원활동에 오는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가 높아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차기 간부가 형성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도 했다.

라이더유니온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간부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없는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조건은 가혹했다. 그럼에도 조건을 내건 이유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합에서 간부의 역할과 자질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간부들을 보고 조합을 판단했다. 자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을 거치고 2023년에는 무려 58명이 간부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했다. 서울지역 간부 대부분은 자원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이었다.

## 배달노동자에게 자원활동의 의미

라이더유니온의 자원활동은 우리 조합원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인 지역에 노동자들이 기여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대 활동

이다. 노동자들은 지역의 상점과 주민이 있기 때문에 먹고살 수 있다. 반대로 지역 자영업자와 주민들 역시 배달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과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 시기 배달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역 자영업자와 주민, 노동자를 연결하는 일은 ‘자본’이 담당해 왔다. 세 주체는 플랫폼 기업을 통해, ‘돈’을 매개로 상품생산과 소비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만났다. 단절적이고 배제적인 관계다.

자원활동은 ‘화폐’를 매개로 한 지역의 관계를 상호 나눔과 연대를 매개로 한 관계로 전복한다. 이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이 다르게 해석된다. 조합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은 3천원의 배달료를 벌기 위해 동네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원활동 과정에서 도시락을 기다리는 지역의 주민들과 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관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을 필수적이고 소중한 노동으로 재해석한다.

상품생산을 하는 목적이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이라면, 자원활동의 목적은 나눔과 보람이다. 노동과정 역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윤을 목적으로 할 때의 노동과정은 배달시간, 건당 배달료, 배달 건수 등에 의해 통제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보수 액수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게 된다.

나눔의 가치를 목적으로 할 때의 노동과정에서는 시간 압박, 보수의 압박에서 해방된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는 내가 만들어 낸 노동의 결과물을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도가 결정됐다면 자

원활동에서는 주민과의 상호 작용, 동료들과의 만남과 소통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노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전복적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실로 반자본주의적이다.

물론 자원활동이 항상 이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다. 본디 예외적 사건의 감동은 짧고 일상의 지루함은 긴 법이다. 자원활동을 처음 했을 때의 보람은 한 달에 한 번 꼭 해야 하는 일로 관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일이 바빠지면 귀찮아질 수도 있다. 조합의 투쟁성을 약화할 우려도 있다.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는 건 싫지만, 자원활동은 오고 싶다는 조합원까지 나타나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도 한다. 집회 참여 경험이 좋지 않은 조합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수동성이었다. 긴 시간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간부들의 똑같은 발언들만 듣고 오다 보니, 반드시 본인이 참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다. 물론 집회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시키고 교육할 필요도 있겠지만, 라이더유니온과 같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과의 일상적 접촉이 어렵다. 모이는 것 자체가 과제이다 보니 교육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활동은 조합원의 활동선택지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조합의 투쟁성을 유지하고 투쟁의 의미를 공유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체제 유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의 임금 인

상과 노동조건 향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조가 권장되고 노조법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자원활동이든 노조 활동이든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역할일 것이다.

### 라이더유니온 자원활동으로 본 나눔연대활동 방향

라이더유니온 자원활동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라는 특징 속에서 탄생한 활동이라 보편적인 모델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나눔연대활동을 해보려는 조직에서 주목해야 할 원칙들은 있을 것 같다. 먼저 조합원들이 제일 잘하는 걸 찾아내야 한다. 노동자에게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자존감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다. 본인의 노력을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후려치기당할 때의 분노가 노조를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자원활동을 찾아낸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이라는 비교적 쉬운 직무능력을 찾을 수 있었지만,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자원활동과 조합원의 직무 연관성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이야기와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 외에는 정도가 없다. 둘째,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자원활동이 간부의 업무가 되면 안 된다. 셋째, 노조를 잘 이해하는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넷째, 자원활동의 철학



을 잘 공유해야 한다.

2021년 이후 약 2년간 자원활동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역시 남게 됐다.

첫째로 자원활동 참여자 확대가 쉽지 않다.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적게는 7명에서 많아야 20명으로, 2년 정도 지나니 매번 오는 사람만 오게 된다. 비조합원까지 확대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싶지만 조합원 이외의 배달노동자에게까지 호응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둘째로 관료적인 기관의 경우 자원활동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역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관의 경우 조합원과 자원활동 이외에도 지역행사 등을 통해 밀접하게 접촉한다. 반면 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관에서는 관료적인 만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활동에 리더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원활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철학이 존재하고 기관과 노조, 또는 노조와 노조원이 자원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고 작은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연대운동적 관점에서 자원활동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혜적인 활동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원활동 주체들은 물론 기관과 협력관계를 만들 때 철학과 관점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네가 있어 우리가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선봉\*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대 전환 위한 생활문화위원회

노동자들에게 지역은 어떻게 인식돼 왔던가? 지역은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먼 주거공간 정도로 인식돼 왔다. 이렇게 인식된 지역은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한 장소나 노동자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수가 많으면서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소외됐다.

그들은 사업장을 나서는 순간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노동조합 활동이 주로 사업장에 국한됨으로써 조합원이 삶의 장소인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에서 스스로 격리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전개된 것이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생활문화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_자립청소년지원사업

이런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서울본부, 지역사회와 함께 서울부터 사회대전환!'이라는 기조로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임금·고용·노동조건에만 한정된 투쟁에 매몰되고, 조합원들이 자기 이익 중심의 비교 경쟁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면서 인권·공공성·평화·기후정의·성평등 등 보편의제에 무관심하면 실리적 조합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퇴근 후 일상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의 모습에서는 투쟁할 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의에 찬 모습은 소심함으로 바뀌고 따스한 시선과 연대는 일상

속에 묻힌다. 일상의 영역, 사업장 밖에서도 노조 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기후정의·생태·인권·차별금지 등 보편적 권리운동에 연대하고, 무상급식·의료·교육돌봄·주거권 투쟁에 일상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지역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직접적인 회원가입을 통해서 지역연대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은 현장의 힘과 지역사회의 지지·연대·지원 등 사회정치적 힘이 함께해야 배가 될 수 있다. 낮은 곳으로의 연대, 더불어 살기 위한 사업, 소모임, 문화예술, 가족프로그램, 공동체적 가치 활동 등으로 지역연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삶은 풍요롭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강화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21년부터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중 최초로 생활문화위원회를 신설했다. 생활문화위원회는 서울지역 노동조합에서 진행되는 나눔연대사업·생활문화연대사업·지역연대사업 등 다양한 생활문화연대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나눔연대활동의 모범사례를 창출해 이를 확산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주요한 문화현상에 대한 노동자 계급적 해석과 공감 형성,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사업, 서울본부 주요 투쟁 의제에 관한 문화공연 창작, 노동자 문화의 확산과 공감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강습 등을 하고 있다.

## 함께 맞는 비, 자립청소년 지원사업

생활문화위원회에서 가장 공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자립청소년 지원사업이다. “네가 있어 우리가 있다”를 기치로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한 해 아동양육시설 827명,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168명, 가정위탁 1천373명 등 청소년 2천368명이 보호 종료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양육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온몸으로 생경한 세상과 대면해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는 든든하고,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이며, 일회성이 아닌 평생의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차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큰 미래의 노동자를 건강하고, 합리적인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은 16개 산별조직과 16개 지역조직이 있는 민주노총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출발은 다소 충동적이었다. 2021년 이른 봄날 민주노총 서울본부 생활문화위원회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남원 한옥 펜션에서 밤을 새워 가며 고민하다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자립청소년’이었다. 어떤 토론회 자료에서 언뜻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립청소년’이란 구체적 대상을 정하자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구상이 전개됐다.

결과는 ‘보호 종료 청소년과 함께 가는 인생 여행’이었다. 보호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온몸으로 정글 같은 세상과 대면해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과 함께 가는, 그들의 인생에 각인될 성장 여행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한 번의 여행이 평생 기억으로 남을 수 있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 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한다고 하지 않던가.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는 든든하고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평생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12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회생활이 처음인, 온실에서 처음 나온 화초 같은 그들이 제대로 된 햇볕과 양분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건실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신적·문화적·철학적·조직적으로 케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주요 조직사업, 청년사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남원에서의 구상을 2021년 6월 1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 서울본부 2차 생활문화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논란 끝에 김은선 국장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차기 회의에 구체화된 기획 초안을 올리기로 했다. 김은선 국장의 문제의식은 명확했다.

상처가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사업진행자들의 자세와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마음을 열기는 더 어려워니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장기간 청소년 사업과 지역 연대 사업을 추진해 본 오랜 경력자의 뼈아프고 적절한 충고였다. 3차 회의에 제출된 김 국장의 기획 초안은 다음과 같았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자립청소년 지원사업 - (가칭) 네가 있어 우리가 있다.

### 1. 사업의 필요성

- ① 시설보호 청소년의 보호 해제 이후 경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립 시기 경제적 어려움은 크지 않음.
- ② 다만, 자립 이후 50%의 청소년들이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이유로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데,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함.
- ③ 자립 시기 선배 노동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중장기적인 연계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힘을 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음.
- ④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자립청소년(청년)들이 건강한 노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울타리가 되고자 함.
- ⑤ 추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장되면, 전국단위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

### 2. 사업개요

- ① 협력 기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희망씨,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협의회
- ② 사업 내용
  - 가. 대상: 그룹홈 자립청소년 10명
  - 나. 대상자 모집: 그룹홈협의회에서 서울지역 그룹홈에 안내문을 보내 참가자 모집
  - 다. 사업 내용
    - A. 관계강화 - 신뢰 형성하기, 자립캠프
    - B. 자립청소년 생활 지원
      - ◎ 자립지원 교육 - 금융교육, 노동인권교육, 메이크업교육
      - ◎ 자립지원 물품 지급
    - C. 참여 조합원 감수성 교육
  - 라. 사업 시기: 1년 차 2021년 10월-2022년 9월

김은선 국장의 초안을 기반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생활문화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수성 교육이 최우선이었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

회 사무총장이 직접 강사로 와서, 한국 시설 아동들의 현실과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실상, 보호 종료 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조심해야 할 것 등을 세세하게 알려 줬다. '그룹홈'이란 단어를 들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무척 부끄럽고, 한편으론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2020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sup>1</sup>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학대·빈곤·유기 등 가정에서의 위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다. 주요 기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 아동의 생활과 교육 및 정서 지원, 보호대상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다.

그룹홈에서는 보호 인원을 5~7명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설아동이라는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그룹홈은 대규모 시설 보호의 대안적 체계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가정외보호' 체계의 하나로 그룹홈이 처음 도입된 지 약 25년이 지났고, 2004년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예산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 수 역시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보호

1 신한은행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년 9~10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인구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대상아동에 대한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룹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서 2020년에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한 보호조치 아동은 총 4천120명이다. 이 중 70.7%인 2천913명은 아동복지시설 등 가정외보호 체계에 배치됐는데, 그중 그룹홈에 배치된 아동은 714명(24.5%)이다.

2019년 말 기준 그룹홈 이용 아동 2천949명 중 초등학생이 1천24명(34.7%)이고 중학생 678명(23%), 고등학생 666명(22.6%), 미취학 378명(12.8%) 순이었다. 20세 이상으로 연장보호를 받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157명(5.3%)이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퇴소해야 한다. 보호 종료 후 가정 복귀가 여의치 않은 아동은 퇴소 후 자립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해 만 15세부터 자립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홈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 보호대상아동의 배치와 제도적 지원이 아동양육시설에 치중돼 왔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그룹홈 거주 아동에게까지 자립지원서비스가 확대됐음에도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2021년 “네가 있어 우리가 있다”는 제목으로 자립청소년 지원사업을 시작해 1기 10명을 모집하고 1년간의 만남을 지속해 2022년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3년 3월에 2기 8명을 모집해 만남을 진행 중이고, 8월 초에 캠프를 열었다. 1기를 졸업한 청년들을 모아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너나들이’가 청년들과의 모임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1기 졸업자들 중 대부분은 자립을 했거나, 자립 준비 중에 있으며 자조모임 내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 서울지역 노동조합들의 참여 확대

생활문화위원회에서는 김장나눔사업도 하고 있다. 배포가 남다른 사무처장은 처음에 1만 포기를 계획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초라하게도 2021년에는 500포기, 2022년에는 1천포기 김장을 했다. 2023년에도 1천포기를 준비하고 있다. 참으로 포기가 빠른 사무처장이다. 충북 괴산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최고품질의 배추만을 쓰고 있고, 청주에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맛깔나는 김장 속재료들이 공수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지역지부와 산별 조합원들의 십시일반 모금과 김장 당일 노력 봉사로 탄생한 김치는 서울지역 26개 그룹홈과 투쟁사업장, 해고노동자, 이주노동자, 노숙자, 빈민 등에게 배달되고



있다.

생활문화나눔 확산에도 매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산별과 지역조직의 대의원대회나 주요 회의 때 참석해서 교육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속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지역지부 사업장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노조 1그룹홈 연계 사업도 꾸준히 성과를 내어 그룹홈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남본부, 인천본부 등에서도 자립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는 등 이 사업의 전국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 함께 꾸는 꿈

2022년 자립지원 여름캠프에 참가했던 청년들의 평가를 보면 이 사업의 성취를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늦게 참여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줘서 고맙다.”

“캠프 시간이 금방 가더라. 친구들과 어색함을 풀고 친해졌다. 앞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다. ○○이와는 계속 친하게 연락하고 지낼 것 같다.”

“○○랑 친해져서 좋고, 우리 의견을 들어줘서 좋았다. 공부 때문에 오는 거 신경 쓰였는데,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줘서 좋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듯하다.”

“낮을 많이 가려 걱정했다. 작년부터 만난 친구들이지만 말도 잘 못 걸었는데 이번에 친해지게 됐다.”

“캠프 기획단에 배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좋았다. 이번 자립준비 청년 여름캠프에 민주노총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지역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자본의 새로운 전략적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광범한 신자유주의 통치 확산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여가와 소비문화,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와 공적영역 등이 철저히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화·세계화로 편제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해가 관철되는 공간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제 사업장 담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 영역에 주목하고 개입할 요소를 찾아야 한다. 환경·생태·의료·교육·인권·여성·이주 문제 등 지역에서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 함께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은성\*

### 사회연대사업 시작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15년에 사회연대기금을 처음 조성해 2016년부터 사회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노동법이 개악되면서 재벌과 자본의 배만 불리는 시장경제체제가 더욱 심화됐다.

노동구조는 갈수록 파편화되고 고용형태가 유연화돼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에 경남지부는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사회연대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부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경남지부는 조합원들이 직접 매월 납부하는 사회연대기금으로 사회연대사업을 한다. 조합원들이 직접 납부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취지도 있고,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수입예산을 매년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경남지부의 사회연대사업은 '사회연대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부 담당 임원(부지부장) 1명과 담당 집행위원(사회연대사업부장) 1명, 그리고 사업장의 지회 간부 12명이 결합해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금속노조에 맞춰 2년이다.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을

위한 세칙을 두고 있고, 세칙에 명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 운영세칙]

- 2015년 12월 9일 제2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 2016년 3월 10일 제3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2016년 12월 1일 제3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1. 교육비 지원사업
2. 비정규직/이주노동자 지원사업
3.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4. 재정 조성사업
5. 농민, 청년, 학생, 빈민, 시민연대사업
6. 문화연대사업
7.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의 세부 내용

경남지부는 비정규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장학금)를 지원했고, 2016년 사회연대기금으로 운영되는 상담 차량을 통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실시했다. 2017년에는 경남 지역 단체인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회와 함께 '집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실태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구술집 제작, 창원지역 상가건물 청소·경비 노동자 환경 실태조사 사업 등을 했다. 또한 경남지부는 비정규직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시 골든루트산단에 있는 '작업복세탁소'에 배송차량을 기증하기도 했다.

경남지부는 녹색병원과 협력해 제조업 비정규·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의 압박, 경제적 사유 등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제공하고자 녹색병원에서는 노동자의 소득에 따라 최대 500여만원 상당의 의료지원을 하고 경남지부는 노동자들이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으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책자를 번역 배포하는 사업과 상담·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캠페인 사업은 2021년부터 '이주노동119'라는 단체를 만들어 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2021년 상반기에 경남지부와 함께할 이주 단체를 모아 초동회의를 가졌고, 같은 해 9월 이주노동119가 출범했다.

현재 이주노동119에는 경남지부를 비롯해 지구인의정류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공익인권법재단공감·원곡법률사무소·(사)이주민과함께·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일환경건강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주노동119는 경남지부 사회연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이주민 출신 활동가들에게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각종 토론회·기자회견을 진행



함으로써 정치권을 향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업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으로는 생리대 지원사업과 저소득 가정 생계비 지원사업이 있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7년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돼 2021년에는 저소득 여성에게 지원했다.

저소득 가정 생계비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에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으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농민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 외에도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위해 국제연대의 의미로 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농민·청년·학생·빈민·시민연대사업은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하는 사업이다.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공동기획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청년·여성·문화단체들과 함께해 왔다.

2021년에는 경남지부와 청년단체가 사업을 공동기획해 시민들(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노동교육을 진행했고, 노동 관련 저서를 읽는 독서모임을 했다. 여성사업으로 경남지역 여성운동가 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들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사회와 단절·고립되지 않도록 문화체험 학습을 했다.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누기 사업은 농민·노동자·지역연대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입산 농산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

역 농민에게 국산 배추를 구입하고 경남지부 조합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한다.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시민단체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배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면 사회연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하고 있다.

##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고민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을 매년 실천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고민 또한 존재한다. 바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사회연대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사업에 조합원들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남지부는 2017년 34차 정기대의원대회 의결 뒤 중·장기 전략사업을 위한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다. 사회연대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였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무슨 사업을 할지를 놓고는 여전히 토론 중이다.

경남지부는 중·장기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희망연대노조를 방문해 사회연대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참고해 힌트를 얻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조합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지부가 중심이 되어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은 조합원들의 관심도 낮을뿐더러 사업을 진행할 때도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경남지부에서는 올해부터 지역별(창원, 김해, 거제·통영, 사천 등)로 사업장을 구분한 뒤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노총 산별연맹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도 사회연대사업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노동의 가치가 아닌 자본의 가치, 도덕적 가치가 아닌 돈의 가치만이 중요시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나만 잘살면 된다’는 무서운 생각이 시민들의 마음속을 잠식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노동조합에서부터 연대를 향한 실천이 발화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새로운 상상, 새로운 도전

안산·시흥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최은미\*

좋은이웃을 찾아오면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조업 노동자를 비롯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이웃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다. 하나의 직종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노동자들이 안산·시흥 지역을 기반으로 좋은이웃이라는 울타리에 모이기까지 장장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 반월시화공단 현실, 그리고 우리의 시도

9년 전만 해도 지역을 거점으로 미조직 노동자들을 공제회라는 이름으로 조직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한 이 일을 시작했던 건, 다름 아닌 안산·시흥지역이 처해 있는 현실 때문이다.

\* 안산 좋은이웃 사무국장



좋은이웃\_창립총회

안산·시흥지역에는 반월시화공단이라는 국내 최대 영세기업 밀집 공단이 자리하고 있다. 1만6천여개 기업이 상주하고 있고, 28만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공단지지만 50명 미만 사업체가 98%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17명 정도에 불과하다. 영세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반월시화공단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노동조합 조직률 1%가 안산·시흥지역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반월시화공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모을까?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자들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수히 찾고 있었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부상조하며 스스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2012년과 2013년 진행된 노동자 실태조사와 욕구조사,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지역노동자들의 생활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공제회 건설이었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공제회를 창립하고 일터와 삶터에서 필요한 것을 공동의 힘으로 풀어 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문턱이 낮고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노동공제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모이고, 모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활안정과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들의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2015년 3월 그렇게 탄생했다. 처음 좋은이웃을 구상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이야 공제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데다 과연 사람들이 모일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퇴색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노동자를 만나다

좋은이웃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주가 되어 창립하고 이끌어 왔다. 그러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분들은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있고, 지금의 노동이 인생의 마지막 노동이라고 생각했다. 경비노동자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 절실히 보였다. 100여명의 경비노동자들이 모여 2019년 아파트경비노동자모임을 창립했다. 좋은이웃 내 직종 모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연이 이어졌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특성화고를 다니는 현장실습생이 투신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인생의 첫 노동을 경험하는 현장실습생들은 노동의 참담함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자, 특성화고 전담 노무사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로 인해 학교에서 노동법 교육을 하게 된 노무사가 현장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청년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과연 모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지만, 우선 부딪쳤다. 그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스무 살, 스물한 살이 되자 2021년 특성화고 졸업 청년노동자모임 마니포를 창립했다.

“나는 누구보다 나의 편이 절실했다. 말장난하는 어른들이 아닌, 나를 어린애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해 줄, 나를 위로해 줄 그런

어른이 필요했다. 아니 그 무엇보다 절실했다.”

“난 달라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면 내가 알게 된 방식으로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혼자서 아닌 모두라면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뀐 나 자신이 신기했다.”

마니포 친구들이 월간 작은책에 기고한 글 중 일부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웃 노동자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21년 12월 “코로나 시대를 살아온 노동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원탁토론회에 10개 직종의 노동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처한 노동 현실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여한 날, 이웃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좋은이웃이 손 내밀어야 하는 노동자들임을 느끼는 자리였다.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이웃은 7개 직종 노동자 100여명이 참석한 노동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그 흐름을 이어 아파트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프리랜서 강사들과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초보적인 관계와 소통의 끈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직 정식 모임은 아니지만 같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힐링하는 것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본다.

또한 반월시화공단 소규모 사업장 복지 증진을 위해 안산시 공동 근로복지기금 1호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 30곳의 재직노동자 5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용인원 1인당 24만원을 부담하면 기금법인에서 1인당 연간 최대 36만원의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약간의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불능력이 부족해 사업장의 복지를 증진하기가 쉽지 않은 반월시화공단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실업위로금·의료비특별지원·소액대출 좋은이웃다운 공제회 사업을 펼치다

현재 좋은이웃 회원은 630가구다. 가족회원이다 보니 630명보다는 630가구라고 표현한다.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안정 사업은 대표적으로 상호부조, 소액대출, 협약기관, 의료보조기기 무료대여, 산재노동자 지원사업이 있다.

상호부조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실업위로금 25만원씩 최대 2회, 의료비특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호부조사업기금은 월회비 중 매월 1인당 500원씩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한국와이퍼와 동양피스톤 사업장에서 좋은이웃에 후원한 사회연

대기금 일부를 활용해 연간 1천400만원가량의 상호부조사업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참고로 회원들의 월회비는 1시간의 노동을 함께하는 삶을 위해 나누자는 가치를 담아 그해의 최저시급을 월회비로 책정하고 있다.

소액대출사업은 긴급생활자금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연 2%를 책정하고 있다. 병원·카센터·영화관 등 안산지역 59곳 업체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약기관 사업과 산재노동자에게 생활비 및 치료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산재노동자지원사업이 있다.

권익증진 분야는 아파트경비노동자모임과 청년노동자모임 마니포를 비롯해 다양한 직종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좋은이웃 회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투쟁이 발생하면 응원하고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회원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네모임과 FC나르샤(여성 축구), 우연희(연극), 모듬회(50대)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좋은이웃과 함께하는 동아리로 따숲네(봉사), 더불어숲(여행), 상상농장(주말농장), 영화술사(영화관람), 토닥(도자기), 안산준인(영화제작), 일요책모임, 안산노동대학동문회가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문화·소통 공간으로 마을숲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 와동에 자리하고 있는 좋은이웃 사무실은 2층과 3층 두 개 층



으로 나뉜다. 노동자들의 회의와 모임, 그리고 편하게 술 한잔 먹는 뒤 풀이 장소로 활용하는 더없이 소중한 우리들의 공간이다. 2층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숲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고, 3층 한편엔 상추를 키우는 화분이 있기도 하고, 3층 공유주방에서 고추장과 막걸리를 만드기도 한다.

### 좋은이웃을 만들 수 있었던 힘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새로운 형태로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나름 믿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숲(여행), 영화술사(영화관람) 등 노동자 동아리에 노동자 1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었고 이미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동아리를 통해 모인 노동자들에게 우리를 위한 조직을 만들자고 하면 함께 나서 줄 것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는 공적 기반이 있어 좋은이웃 설립을 추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좋은이웃을 자신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2014년 지역 노동자 동아리, 안산노동대학, 민주노총 안산지부, 미조직 사업장,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공제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 좋은이웃의 희망과 가능성

공제회는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사업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좋은이웃이 사업 하나하나를 시도할 때마다 회원들의 의견과 참여가 매우 큰 힘을 발휘했다. 운영을 거듭할수록 공제회 내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구조가 매우 중요함을 느꼈다.

생활안정팀·권익증진팀·재정팀·소식지팀을 비롯해 상호부조사업위원회·소액대출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사업을 도입했다. 게다가 회원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제회 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혜택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지역형 조직화 모델로 좋은이웃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조업 중심의 좋은이웃은 회원은 600가구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직종의 이웃 노동자들을 만나 회원 확대의 활로를 찾으려 한다. 소규모 사업장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각각의 직종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에서 함께 만나며 좋은이웃이라는 울타리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꿈꾼다.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우리에게겐 더불어 살아

가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거침없는 상상은 계속된다

요즘은 공제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시대다. 좋은이웃 사례를 탐방하기 위해 찾아오거나 문의하는 이들이 유난히 늘고 있는 것만 봐도 10년 전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무모하게 시도했던 우리의 실험이 이제 검증되고 있고,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이웃을 찾아오는 분들께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다. 모든 고민은 지역에서, 혹은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 무턱대고 시혜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몇 가지를 시도한 후 '별 성과가 없네' '이런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지' 하는 회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보이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 좋은이웃 역시 안산·시흥의 현실에서 출발한 우리지역의 사례일 뿐이다.

지역에는 노동조합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복지혜택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노동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조직하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좋은이웃은 곳곳에서 이런 활동가들이 자기 몫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뿐 아니라 아파트 경비노동자, 특성화고 졸업 청년노동자, 아파트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프리랜서 강사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상상이다.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지만,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새로운 길이 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실천이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있다.

부디 지금보다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상상을 끊임없이 펼치고, 서로에게 응원해 주길 바란다.

## 사회연대를 실천하는 공공철도를 꿈꾸며

희망철도재단

김용식\*

### 철도노조, 사회연대(공헌)사업을 고민하다!

철도노조는 2000년 민주노조 건설 이후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걸고 2002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3년 등 수차례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처음부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2013년 파업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힙내라, 철도노조”라는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투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은 ‘철도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의제에 동의하고 함께했다. 이제 사회 공공성 의제는 철도 등의 국가기간산업을 넘어 교육·의료·돌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 공공성 강화” 운동으로

\* 희망철도재단 사업팀장



희망철도재단

확장됐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함께한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은 단지 의제에 대한 동의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상적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지지하는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사안별 연대를 넘어 조합원이 일하고 생활하는 삶과 투쟁의 공간으로서 지역을 고민하게 됐다. 이는 “철도 공공성” 의제만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벌어져만 가는 노동자 내부 격차, 청년실업, 중·장년층 빈곤화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것이 철도노조가 노동자·민중과 함께하는 일상적 지역사업을 결의하게 하



고, 삶과 투쟁의 공간인 내 지역에서 “철도 공공성과 사회공헌사업”의 접목을 시도하게 했다.

철도노조의 사회연대사업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첫 번째는 노조 내에서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사회연대국·위원회 등을 운영했지만 단기적 사업에 그쳤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집행부 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등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침이 있었다. 세 번째는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경로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고민하게 됐고, ‘희망철도재단’이라는 노사공동재단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철도노조는 2015년 단체협약을 통해 철도의 사회공헌 가치를 실현할 노사공동의 사회공헌재단을 추진했고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하게 됐다.

철도노조는 희망철도재단 설립을 고민하면서 기존 사회공헌 활동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기존 철도공사 내에 존재하던 공헌활동(러브펀드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립 기반의 참여형 활동을 추진하며, 보여주기식 활동을 지양하고, 사회공헌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동시에 노사공동 운영으로 사회공헌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희망철도재단 설립으로 ① 재원확보 경로 마련(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② 조합원 참여 유도(자원봉사등록센터 지정) ③ 사업집행 객관성 담

보(매년 외부 세무·회계감사 등) ④ 재단 해산 시 재산을 국가·지자체, 동종 사회공헌재단에 기부 시스템 마련으로 노사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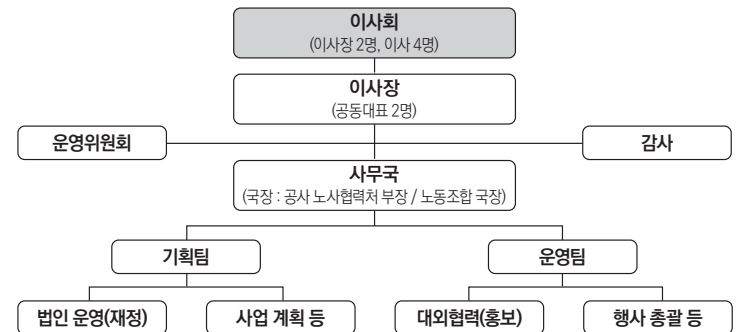
□ 출연주체 유형

- 희망철도재단은 ‘노사공동 재원 출연’으로 “사회공헌기금+사회연대기금”이 혼용된 형태, 2015년 단체협상을 통한 합의로 조성, 노사공동으로 기금 운영

□ 조직 구성

- 기본 방향: 철도공사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직원이 겸직
- 인원 구성(안): 이사장(2), 이사 6명, 감사 2명, 사무국 산하 5명

구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사회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사	한국철도공사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인사노무실장
감사	한국철도공사 노사협력처장	



## 희망철도재단 소개

희망철도재단은 철도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금전적 기부를 넘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재능 등을 활용해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 활동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에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찾아가는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재단은 철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하나로 철도 시설·공간 나눔 활용 사업 중 역사 활용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철도의 특성인 여행사업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희망철도재단만의 특성을 갖는 마음치유사업을 접목해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의적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상황에 맞는 공익활동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공익활동 단체의 협의체 구성 지원 및 연계활동을 통해 각 단체 봉사활동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희망철도재단은 크게 ① 사회통합과 지역협력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 ② 생활·문화연대 사업, 청소년·청년 환경·마음치유사업 ③ 지역

거점사업, 조합원·직원 재능기부 사업 ④ 철도산업을 연계한 철도 인프라 사업 ⑤ 국제사업: 제3세계 자립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영역별 세부 사업 소개는 생략한다.

주요하게 장애인 사회성 향상사업, 신청성 심장병 환우 인식개선 캠페인, 서울지역아동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 “너의 꿈을 응원해”, 청소년 이지트 마련 사업, 청소년 청년 평화·기후 교육지원사업, 청소년 환경보호 교육 및 캠페인, 마음을 잇는 산책\_마음치유, 홀몸 어르신 침구 세탁 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온라인 디바이스 기부, 시흥차량 목공봉사회 지원사업, 노동존중 마음을 잇는 철도여행, 서울역 마음을 잇는 우체통, 탄자니아 음부미 마쿠루 마을 식수 지원사업 등 58개 사업이 설 새 없이 펼쳐지고 있다.

## 희망철도재단, 만만치 않은 시도!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재단을 설립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시도로서, 기본적인 토대가 부족했다. 동시에 노동조합 중심 활동에서 노사 공동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거부감이 존재했으며 이에 따른 부담감도 상당했다.

또한 시기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를 상대로 방만경영, 성과연봉제 도입, 철도 분할 등의 의제를 제기하던 상황이라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노사 공동의 재단을 설립하자고 조합원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함에도 임단협에 합의한 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6년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하게 됐다.

희망철도재단을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구상을 가장 중심에 뒀다. 참여를 기반으로 구축된 사업은 뿌리가 깊다. 사업 주체 형성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참여를 배제하고, 자발적 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 재단과 함께 사업하는 단위들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참여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정 단체 후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노동조합(재단)도 네트워크의 한 구성 주체로 활동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업과 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희망철도재단이 핵심에 두고 있는 조합원 참여사업은 거점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전국 기지에 분포해 있는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련된 거점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부산지역 친환경먹거리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목공)희망제작소 사업, 컴퓨터 보급 사업,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여행 사업, 청소년 목공체험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청소년 쉼터 개량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각종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 7년의 시도, 더 넓은 연대의 확장을 위하여!

7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희망철도재단이 뭐하는 곳이야”고 묻는 조합원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연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조합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2년 전부터 조합원 참여사업을 확대하면서 조합원들은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선 지역사회에 관심을 보이고, 재단의 역할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값싸고 편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지켜온 철도 노사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자 희망철도재단을 만들었다. 희망철도 재단은 동전 한 닢의 기적처럼 모으고 더해 철도 가족이 보내는 하나 하나의 정성으로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으나마 위안과 희망을 줄 것이다. 다양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드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다. 2020~2023년 코로나19와 방역지침에 따라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연기·변경·중지·포기하는 상황이 많았다.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사업인 철도 관련 탐방과 여행이 당장 영향을 받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륙철도 관련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희망철도재단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재능나눔” “지속 가능” “지역공헌”의 가치를 실천해 갈 것이다.

## 차별을 이기는 희망, 우분투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혜원\*

###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운동의 첫걸음

매년 6월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6월 항쟁 기념식을 개최한다. 1987년 6월 항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헌법을 수호한다는 의미의 대통령 간선제를 선언한 '4·13 호헌 조치'에 항의해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서울 명동과 을지로 주변에서 금융사무직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벵타이 부대로 불리며 명동성당 일대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이전까지 금융사무직 노동자들은 정치적 견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제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소득자,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으로서 사회 변혁을 가로막는 자들로 인식됐으나 6월 항쟁 이후 6·29선언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재평가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업팀장



사무금융우분투재단\_서민금융진흥원지부 제화사업장 노후 LED조명 교체 사회연대 활동

됐다.

2017년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30년을 뒤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나아갈지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시기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 변혁의 주체였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 만연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운동을 주도하고 노동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200여차례 논의 끝에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하 우분투재단) 출범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 ‘우분투프로젝트’ 추진 배경

사무금융노조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진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조합원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절감했다. 자신의 사업장을 넘어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전체 차원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은 대기업이 대부분이며 그들 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해 왔으나 사업장 밖에서는 자본과 기득권층의 전략에 따라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온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 차원의 사회연대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자 전략이기도 했다. 선진 사례에 비추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것 또한 사회연대운동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노사가 함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노사가 공동으로 사회 문제에 당사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사회연대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노조원들의 급

여와 기업 이윤의 일부분을 출연해 조성되기 때문에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회사(자본)와 노동자의 이익을 재조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회연대운동으로서 우분투프로젝트 의미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어떤 사회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성과를 위한 활동인 경우가 많다. 또 사업 대상을 ‘연대’ 차원이 아닌 단순한 ‘시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달리 노사가 함께하는, 또는 노조가 주도하는 사회‘연대’활동은 사업 대상을 사업의 한 ‘주체’ 및 ‘연대’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업 외관은 기업의 사회공헌과 비슷할 지라도 더 구체적이며 지속적일 수 있겠다고 사무금융노조는 판단했다. 사업 대상자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 단순한 시혜 대상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므로 기존의 사회공헌 사업보다 사업 대상에 더 밀착해 사업을 세심하게 계획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 불평등 양극화 특위 활동과 사회연대기금 조성 선포식

사무금융노조는 2018년 2월 제1차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불평등·양극화 특위는 사무금융노조 상근 간부는 물론 여수신, 증권, 생명 및 손해보험, 공공금융 등 5개 업종 본부장과 업종별 위원을 선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의제를 선정했으며, 사회연대기금 조성 방안과 노사협의 전략을 논의했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기관별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의 임금을 일정 부분 출연하는 일이라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불평등·양극화 해소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하며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른다.

그해 4월 사무금융노조는 30여곳 기업 대표와 노동조합 상근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노사 사회연대기금 조성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모으고 활용할지를 놓고 수없이 많은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해 6월에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의제 하나로 산별중앙교섭을 실시했다. 2011년 사무금융노조가 설립된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앙교섭이었다.

중앙교섭장에는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을 비롯해 BC카드, 하나의 환카드, 교보증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사측 대표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사측을 대표해

발언한 이병래 사장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 노사가 우분투프로젝트의 취지에 합의한 만큼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연대에 대한 마음에 노와 사가 따로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노조 측을 대표한 김현정 위원장은 “오늘의 자리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의 작은 씨앗이 되고, 금융산업 및 노사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무금융노조 사회연대기금 조성

산별중앙교섭 이후 업종별, 지부별 교섭이 이어졌다. KB증권이 2018년 8월 2일,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8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그 연대의 약속을 시작으로 KB국민카드·애뉴온저축은행·교보증권·하나외환카드·신한생명·BC카드 등 2023년 10월 현재까지 18곳의 노사가 85억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했다.

사무금융 노사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공감하고 흔쾌히 수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무금융노조는 1987년 역사의 전환점에서 풍향계 역할을 했던 것처럼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우분투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직장의 벽을 넘어 소외된 약자들과 불평등 문제, 소득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회연대의 주체로 나섰다. 그리고 2019년 설립된 우분투재단이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잘사는 사회’를 기치로 사무금융 노사가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의 뜻과 의미를 사회연대 속에서 직접 실행해 나가고 있다.

###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와 우분투재단의 역할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청년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 격차 확대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빠르게 다양화되고 제도권 밖 노동자들이 증가해 노동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경제구조가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위에 제시한 노동시장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대: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고용계약 대신 일거리 1건당 보수를 받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택배, 배차, 물류배송, 쇼핑대행, 음식 배달, 가사관리사, 웹툰 및 웹소설 작가, 번역,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법 바깥의 노동자 증가: 상시적 일자리였던 일들이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 일자리로 쪼개져 더욱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180만명에 이른다.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는데도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은 더 벌어져: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는 1년 전보다 9만명이 늘어 815만6천명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6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22. 10. 25) 비정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복지 배제 등과 같은 차별적 대우로 빈곤이 더욱 심해지며 ‘위험의 외주화’로 산업재해가 전가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분투재단은 설립목적에 맞추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대응전략 마련, 노동자 구제와 조직화, 나아가 제도개선을 위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사회변화를 위해 필요한 더 큰 연대를 향해 노동조합은 물론 주변의 제 단체와 연대를 넓혀 가고 있다.

## 우분투재단이 주목한 사업들

### 1. 사무금융 내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 ① 사무금융노조우분투비정규센터

사무금융업종 안의 다수 비정규직인 콜센터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를 계기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원·하청-노조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고, 건강실태조사와 노동환경 조사 등을 바탕으로 콜센터 노동자 보호 5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콜센터 노동조합 2곳과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2곳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 ② 콜센터 노동자 마음 치유

2020년 우분투재단과 사무금융노조가 실시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90% 이상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심리적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분투재단은 2021년부터 콜센터 노동자 등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집단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화된 치유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관리지표를 개발 중이다. 콜센터의 대표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어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의 모범이 되고 있다.

#### ③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플랫폼 노동시장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2019년부터 우분투재단은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의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해 왔다. 특히 안전에 초점을 맞춰 배달 사고 시 자차수리비와 병원비를 지원하는 공제사업을 진행했고,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안전배달시간을 정하고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했다. 사회보험 및 운송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라이더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부터는 나홀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시장

#### ① 초단시간 노동자 쉼과 회복 지원

주 15시간 미만의 일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유급주휴일·연차유급휴가도 없고 병가도 없다. 지자체의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돼 자기 돌봄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권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건강권 문제제기를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②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기

직장에 속해 일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를 상담하고 조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식당, 편의점, 방송국, 프로스포츠, 조선소, 건설현장, IT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제대로 조사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상을 파악했다. 또한 부당한 징계와 체불임금 등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③ 청년 여성노동자 일상회복

우울과 자살로 내몰리는 청년 여성노동자에게 치유상담을 지원하고, 서로의 지지로 연대 공동체를 형성해 노동자로서의 주체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자살 방지 캠페인 등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다.

## 3. 우분투재단에서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

- 콜센터, 봉제, 제화 노동자 일터 환경개선(지부와 연대)
- 사무금융 비정규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불안정 노동자와 활동가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공익단체와 활동가에게 코로나19 특별용자

- 자립준비 청년의 삶터 마련과 공동체 형성
- 제2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 연구
- 한국의 금융불평등 연구
- 사회변화를 위한 '생각대로' 프로젝트 등

## 우분투재단의 계획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그동안 일궈 온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사업을 좀 더 옆으로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주요 현상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더 열악한 비정규직, 더 시급한 법 바깥의 노동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노동시장의 중장기 변화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냉철한 문제의식으로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대응하고 연대하며 사회연대기금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

• 참고문헌: 「우분투 세상속으로」 김현정 지음

##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이제 생존이다

김진역\*

### 지금 우린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은 잘사는 나라인가? 못사는 나라인가?

이리 질문하면 일부는 잘산다고 하고 일부는 못산다고 한다. 다수는 “이건 뭐지” 하며 머뭇거리다. 당연히 한국은 잘사는 나라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아주 잘살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잘사는 나라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살기 힘들다고 한다. 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청년·학생, 장애인, 소수자, 저소득층 모두 어렵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산재사망률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 국가인 걸 보면 엄살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의문이다. 나라는 잘사는데 왜 우리 개인, 다수 국민은 못사는가?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단법인 희망씨 이사

○나라는 잘사는데, 우리는 왜 이리 힘들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다. 명확하다.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승자독식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각자도생 정글사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소득·자산·교육 불평등이 계속 확대됐다. 2022년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4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만원 늘었지만 하위 20%는 오히려 2만원 줄어든 181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4.8배 수준이던 두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21년 5.23배로 급격히 확대됐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21년 251배로 가파르게 늘어났다.<sup>2</sup> 수십 년간 기업소득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가계소득은 완만하게 상승했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기업, 특히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수많은 지표가 불평등 한국<sup>3</sup>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재난<sup>4</sup>도, 기후위기 재난도 아래로 흘러 불평등하게 다가왔다.

2 신한은행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년 9~10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인구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3 소득·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일자리·에너지·보육·교육·여성·돌봄·건강 불평등 등 각 영역의 불평등 지수가 매우 심각하다.

4 코로나19의 고통은 비정규직·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 비정규 노동자는 실적 경험(31.4%, 정규직의 4.1배), 소득 감소(57.0%, 정규직의 3.4배),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 무급휴가(42.1%, 정규직의 2.6배), PCR검사 후 격리기간 무급휴가(42.2%, 정규직의 3.3배), 감기몸살 증상 무급휴가(42.2%, 정규직의 3.1배)에서 정규직보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 저임금 노동자는 실적 경험(31.4%, 고임금의 5.5배),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 무급휴가(60.0%, 고임금의 18.2배), 감기몸살 증상 무급휴가(49.7%, 고임금의 8.0배)였음. (사)직장갑질119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여론조사(2022년 3월 24~31일)



○ 왜 불평등한 나라가 됐나?

소수의 가진 자, 재벌, 기득권 세력에게 부와 권력, 권리가 집중됐다. 자본과 정치권·관료·법조계·수구언론·보수교단이 연합해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구축됐다. 정치권도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로서 법·제도와 정부 정책을 재벌, 가진 자의 이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펼쳤다.<sup>5</sup> 1987년 직선제 이후 수구보수인 국민의힘과 중도보수인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번갈아 차지하거나 분점하면서 정치를 지배한 결과가 오늘날의 불평등 한국이다.

이를 제어할 수는 없었는가? 유럽처럼 시장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아내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할 수는 없었는가? 모두가 살아남기 경쟁, 각자도생의 끔찍한 정글 사회를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진전을 만들어갈 수는 없었는가? 보편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운동,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 세력인 노동조합·진보정당들이 시장 자본주의의 폭주와 기득권 카르텔을 일정 정도라도 막아낼 수는 없었는가?

자본과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를 막아내기엔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힘이 약했다.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 조직률은 14%대에 불과하다.<sup>6</sup> 사회공공성·인권·환경·성·장애인·성소수자·반전평화운동

5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법', '근로자파견법',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법' 등은 중도보수, 연성 신자유주의 민주당 정권의 친자본 성격을 보여준다.  
6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1년 노동조합 조합원 수(조직률)는 293만명(14.1%)이다. 이 중 한국노총은 123만 7천878명이고 민주노총은 121만2천539명이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조사한 조합원 수는 265만명(12.6%)이다. 두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인 이유는 노동부는 조사 대상에서 법외노조를 제외하고, 통계청은 실업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어서다.

등 대부분의 시민·사회운동은 지난 수십 년간 진전을 이루어 내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 내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다수 대중의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활동 중심 전문단체로 견제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운동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의 울타리에 머물며 제한적 연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본과 기득권 카르텔의 거대한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때론 이명박 정권의 시장주의 폭주를 막아내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 만큼 힘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체제전환의 전망과 내용을 가지고 대안세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치도 수구보수와 중도보수, 보수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생을 깨뜨리고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는 대안정치세력, 진보정당운동이 실패함으로써 불평등 세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 노동조합운동 진단과 성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다. 모든 지표가 이를 입증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복지도 좋다. 노동관계법 적용도 당연하며 고용도 안정적이다. 설혹 고용불안이 발생해도 투쟁을 통해 막아내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하며 산별교섭과 적용도 제도화돼 있지 않아 노조 울타리 안 조합원만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86% 노조 밖 노동자 대다수는 중소기업, 비정규

직, 플랫폼, 불안정 노동자로서 노조 가입이 쉽지 않다. 다수 노동자가 노조 밖에 머무르고 노조가 힘이 약하니 기업소득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가계소득은 완만하게 상승한다.

노동자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다극화는 신자유주의 산물이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한 민주노조 운동의 문제와 한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조합원이 사업장에서는 머리띠를 묶고 임금과 고용,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자본에 종속된 채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투쟁으로 쟁취해 인상한 임금으로 아이들이 경쟁에 뒤처지지 말라고 사교육을 시킨다. 옆집 아이가 수학·영어·미술학원에 다니면 거기다 더해서 국어든 과학이든 더 시켜야 될 불안하다.

공공의료·국민연금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병들었을 때, 노후를 생각해서 사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편 권리로서 주거권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 복지로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개인적 해결을 선호했다. 무상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보다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단체협약으로 따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었다.

부동산·주식·비트코인 등 재테크를 하기도 한다. 이웃이나 친지와 비교하고 경쟁하며 삶을 살아간다. 사업장 안에서는 사용자에 맞서는 노동자지만 사업장 밖에서는 자본에 종속된 채 아등바등 소시민의 삶

을 산다. 물론 이는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구조, 문화, 흐름이다.

노동조합은 대부분 활동을 사업장 임단협 투쟁이나 현안 해결에 투여하고 있다. 공공돌봄·교육·의료·교통, 산별·업종 교섭과 적용, 주거권, 기후정의, 성평등 등 보편적 권리와 가치에는 무관심하거나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 상급조직 차원에서는 요구로 내걸고 있지만 조합원 주체의 일상 운동이나 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임단협 활동에 주력하는 동안 한국은 소득·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돌봄·에너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모든 것을 기득권 카르텔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세력인 노동조합이 사업장 안에 갇혀 그 울타리 안의 조직 노동자 권리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폭주하는 시장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막아낼 수 없다. 당연히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기득권 카르텔에 맞선 노동, 사회·시민, 지역사회, 진보정치와 함께 반기득권 대안세력을 형성해야 했다. 사업장 울타리에 갇힌 노동조합, 결국 사업장 안 내 권리에 머무르고 있는 실리주의·조합주의 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 일반 시민에게 노동조합은 어떻게 비칠까?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를 보면 90% 가까운 다수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노조를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응답했다. 이후 각종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다수는 노조가 필요하다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노조를 이익집단으로 보거나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반노조 정서는 현재 기업별 임단협에 기초한 노조 활동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내가 존중받기 위한 모두의 집단적 힘이다. 하지만 한국 노동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대부분 정규직, 대공장,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집중돼 있고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 영세소기업·비정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기 어렵다. 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계속해서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고용보장 등 권리를 확장하지만 노조 밖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법적 권리 배제 등 차별을 받고 있다. 노조 울타리에서 배제돼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는 나와 상관없는 기득권으로 느껴질 수 있다.

배제된 노동자는 결국 반노조 정서를 드러내게 되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대한 노조 책임론, 노조혐오, 노조탄압의 왜곡된 프레임에 쉽게 동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노조 정서는 역으로 노동시장 이중화·양극화·다중화로 인한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낳은 결과다.

## 새롭게, 다르게, 더불어, 대안노조운동이 필요하다!

○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라! 사회운동노조를 하자!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으로서 특별한 의식적 작용, 일상의 실천, 조직문화가 없다면 실리주의·조합주의로 경도될 위험이 크다. 사업장, 임단협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으로는 울타리 내 권리만 제한적으로 보장받을 뿐이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기존 노조 활동 방식, 조직문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사회운동적 노조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단협, 사업장 투쟁은 기본이자 전제다. 더 나아가 보편 가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의제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운동을 진전시키고 기후정의, 반전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공공성 등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계급 실천, 생활문화·나눔연대를 일상화해야 한다. 자본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새롭게, 다르게, 아래로,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세력이다. 민주노총은 120만 조합원에, 수많은 간부, 재정 등 인적·물적 기반이 그 어떤 사회운동단체보다 풍부하다. 조합원이 어떤 지향과 가치를 가지는지, 이를 의제와 요구로 구체화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지가 한국 사회를 어디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과 지역, 사회운동, 진보정치를 연결하고 있는 사회운동센터가 돼야 한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체제전환 세력을 연결하고, 세력화하는 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운동단체, 지역 풀뿌리단체의 벗이자 기반이 돼야 한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함께 활성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적 기반이 돼야 한다. 진보정당이 의회정치에 경도되지 않고 지역에서부터 대중 주체의 사회운동적 정치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 사회운동과 결합해 진보정당의 토대를 굳건히 하며 보수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주류정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운동노조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 ○일상의 삶에서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

그간 민주노조운동은 사업장 울타리에 머물며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세를 맞서 때론 격렬한 투쟁으로, 때론 양보교섭으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주력해 왔다. 투쟁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본의 노동자 분할지배 전략에 휘둘리며 '일부만 일어서기'에 안주하고 말았다. '함께 살자.' 이를 위한 행보는 일터와 삶터, 생산과 재생산 공간 모두를 아울러 진행돼야 한다. 생활·문화·소비가 이루어지는 재생산 공간, 지역에서 대안적 삶을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나눔연대운

동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2011년부터 임단협에서 매년 3억원 이상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21년부터 앞선 생활문화연대운동 사례를 전파하고 서울 지역 노동조합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의 가치와 의미

○풀빵연대는 실천 운동이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운동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노동운동의 상징이다. 군부독재 기세가 등등함에도 전태일 열사 분신은 당시 사회가 외면한 끔직한 노동현실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조운동의 싹을 틔우고 분출시키는 계기가 됐다. 마침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대중적 노조운동으로 진전을 이루어 내는 데 출발점이 됐다. 전태일 열사는 온몸을 내던져 한국 사회의 흐름과 방향을 바꾸어 냈다. 그 치열했던 투사로서 삶의 시작은 풀빵연대였다.

17세 무렵 재단 보조로 노동을 시작한 전태일. 성실함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재단사로 승진한 전태일은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여공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여공들에게

자신의 차비를 아껴 풀빵을 사주고 도시락도 주는 등 여공들에게 나눔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풀빵으로 실천한 나눔연대! 오늘날 전태일이 살아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상의 삶에서부터 나누고 연대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은 바로 전태일 열사의 풀빵연대를 의미한다. 사회의 근본적 변화, 또 다른 세상·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에 주력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부터 나눔연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누구는 노동조합에서 “왜 봉사활동을 하느냐” “시혜적 활동을 하느냐” “수많은 기부·자선단체들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개인이 거기에 하면 되지 왜 노동조합이 기부 활동을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시혜가 아니라 연대를 하려는 것이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일상의 계급적 실천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나누고 연대하고 참여하며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힘을 만드는 운동이다.

노동조합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당연히 조합원의 단결된 힘에서 나온다. ‘단결·투쟁’에서 나온다. “단결하는 노동자 패배하지 않는다. 투쟁하는 노동자 승리한다.” 이는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검증된 진

리에 가깝다. 투쟁할 때, 특히 장기투쟁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연대다. 노동조합 간에 연대는 기본이지만 사회정치적 연대가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천군만마, 매우 큰 힘이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시민이 노조를 이익집단으로 보거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자본은 반노조 정서, 노조 혐오를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는데 이런 왜곡된 공세가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받고 있는가? 선뜻 그렇다 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투쟁 초기에 평택 지역사회의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평소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별로 없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노동운동이 평소 지역과 연대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 온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도 그들을 ‘특권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역 내에는 대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청과 하청의 형태로 같이 있습니다. 노조 간 연대투쟁, 나아가서는 공동단체협상 등 다양한 연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요. 자영업자, 특히 재래시장 영세상인과 연대하는 건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자녀 지원 등 일상적인 봉사활동도 지역민들과의 유대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죠.”

한 지역활동가의 지적은 새겨볼 만하다.



자본과 정권이 만들어 온 기업별노조 체계를 허물어뜨리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주도해 주거·의료·교육·복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투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내고 이를 인정받지 않는 한 차별과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회운동·지역운동 활동가들이 이야기한다. 노동조합은 “왜 투쟁할 때만 연대하자고 하나?”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왜 안 보이나?” “사업장에서 나오질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은 노동조합과 각계각층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일상의 관계를 만드는 매개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 공동사업을 통해 ‘함께 살자’를 실천하는 공동의 이해 관계 실현, 연대를 공공히 하는 과정이다. 또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힘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다. 노동조합의 가장 강력한 힘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 현장의 힘을 기본으로 일상의 생활문화·나눔연대를 통해 사회정치적 힘이 더해질 때 만들어진다.

○ 조합원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일상의 실천이다.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다. 당연하다. 각자도생,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행복해지기란 쉽지 않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지는 패자대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소수의 지위와 직업을 위해 ‘모두 일어서기’ 경쟁을 하는 잠재적 패배자 모두 힘들고 지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한 삶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하지 않기 위

해, 서로를 딛고 서기 위한 끈직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노동해방이 아니라 노동종속, 평등이 아니라 계급분할, 자유가 아니라 획일화된 틀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 이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에 의한 함께 하는 세상”, 그런 삶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재구성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거대담론을 만들고 사회구조를 바꾸는 운동과 더불어 일상의 삶에서 삶을 재구성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바로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이다. 이 운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행복해지자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생긴다고 한다. 나눔연대를 통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보자.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난 쓸모가 있다고 느껴보자. 흔히 나눔연대 활동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매력적인 활동이라고 한다. 그만큼 가치와 보람을 가지는 활동이다.

간부·조합원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도모하고 만드는 일, 그래서 행복해지는 일상의 실천이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이다. 노동조합의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생활문화·나눔연대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일터에서의 노동자 권리 확장과 일터 밖 노동자들과 거대한 연대의 흐름을 만드는 활동을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 지역과 노동의 만남

나상윤\*

### 지역과 노동의 만남, 무슨 말이지?

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는 판단이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과 노동이 만나야 한다”는 말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과 노동이 만난다는 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사용하는 지역이라는 용어는 ‘삶터이자 생활세계’라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지역에도 생산 현장이 있고 일터가 있지만 굳이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삶터로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노동이라는 용어는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자가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학습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하는 등 각기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과 노동이 만난다는 것을 운동적 용어로 정리하자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삶터에서 주민의 생활세계와 결합해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논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서 지역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지역으로 나와서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이 별로 없다. 사업장 밖으로 나왔더니 가는 곳은 집회 현장밖에 없다.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야 노조간부나 활동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집회 참석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현장 간부라면 잘 알 것이다. 그렇다고 동네로 나와서 일반 주민들을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익명성이 큰 도시에서 개별화된 지역주민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실적인 방안은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지역주민을 접촉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일도 힘들고 노조일도 많은데 지역사회로 나와서 활동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거의 숙소 기능밖에 하지 않은 집 주변에서 풀뿌리 시민사회 혹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과 노동의 만남이 왜 필요할까? 일단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계급적 단결과 사회연대의 필요성 때문이다. 최

\* (사)강서양천민중의집 운영이사 사단법인 희망씨 이사

근 노동조합 조직률이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조직률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유목민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와 달리 산업의 경계를 넘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존 기업별 단위는 물론 산업별 단위로도 조직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초기업 단위로 조직하는 것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비조직 노동자들과 접촉하고 조직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사회연대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되면 조직화를 위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만큼 안정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 단위는 없다.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의 열악한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결합하면 지역사회운동은 그만큼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사회운동이 활성화하면 노동조합에도 긍정적인 운동환경이 조성된다.

사실 노동자들도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생산 현장인 일터에서만 활동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가 생활세계를 잠식하는 상황에서 삶터도 일터 못지않은 현장이 된다. 노동조합과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만남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아래로부터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변화는 아래와 위에서 동시에 진행돼야 비로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 노동자운동의 현실은 어떤가

이전 정부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를 노출하고 있다. 심지어 권력과 자본이 사용하던 분할통치전략조차 포기하면서 노동조합운동 진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세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언론의 동조와 침묵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배경에는 ‘노조포비아’, 이른바 노조혐오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23년 3월 23일자 경향신문에는 “노동운동이 잃어버린 가치 ...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더니 노동조합 필요성을 10명 중 8명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리서치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2022. 10.)했더니 노조활동에 부정적 인식이 45%이고 긍정적 인식은 불과 13%에 그쳤다. 특히 부정적 인식 응답자 중 46%가 노조에 소속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특수고용직 파업은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았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화물노동자 파업 지지율은 각각 75%, 58%였다.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54%), 청소노동자 파업(80%) 역시 지지가 반대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주 69시간 노동제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돼 왔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다 14.2%까지 상승했고, 민주노총의 최근 조합원 수는 120만명으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두 배가 됐다. 이렇듯 양적 성장을 했음이 명백한데 민주노조운동은 왜 여전히 '위기'이며, 위기극복 대안으로 만든 산별노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진보정당은 왜 또 협소해졌을까?

사실 민주노조운동은 대체적으로 외환위기 이후부터 궤도를 이탈해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정리해고

국면에서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탈계급적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게다가 자본의 전략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대응전략과 관성을 유지하면서 되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이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노동계급의 이익 실현보다는 기업별노조 울타리 안에서 조합원의 이익 실현으로 협소화된 것이다. 게다가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실현이라는 사회변혁을 추구하던 노동운동이 언제부터인가 대안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세우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점점 더 이익운동으로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게다가 노동자운동의 주·객관적 조건 변화에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산방식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공장제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기술발전으로 급격한 자동화는 물론 기그 경제(gig economy)에 기반을 둔 플랫폼노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대공장 중심의 노동자운동이 비주류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에는 현상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대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생산방식 변화는 고용형태 변화를 동반한다.

비정규직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의 경우에는 호출노동을 비롯해 세분화되고 그 안에서도 위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불안정성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 조직화 방식이 성공하기 매우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조 설립은 소속 기업에 장기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고용 혹은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를 기존 노조 형태로 조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생활세계를 시장화·상품화한다는 점이다. 가사·돌봄노동을 비롯해 가족과 사회가 담당하던 영역의 상품화는 오래된 일이다. 이제 노동자는 생산 현장에서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도 수탈과 착취가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생산 현장에서 투쟁과 해계모니 확보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생산 현장에서 쟁취한 성과를 생활세계에 다시 빼앗기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어쩌면 생활세계의 착취에 노동조합이 방치를 넘어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생활세계(재생산의 정치)와 결합하지 못한 공장의 정치(생산의 정치)는 자본의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sup>7)</sup>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급격한 인구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1~2인 가구 증가(60%를 넘어감)는 기존 노조활동으로 담아내기 어렵다.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 빈곤으로 인한 고령노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취약성은 결국 각자도생을 통한 생존전략을 선택하게 만든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인구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

하면 점점 더 현실과 유리된 운동으로 고립될 수 있다.

## 지역에서의 실천적 경험과 시사점

필자 역시 공공부문에서 오랫동안 노조활동을 했지만 이미 건설된 산별노조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과 진보정당이 왜소화하는 현상을 겪으면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여러 가지 대안과 가능성 중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주목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지역 거점을 토대로 하는 노동자운동을 선택했다.

강서양천민중의집은 그렇게 시작됐다. 앞서 설립된 다른 민중의집이 대체로 진보정당에 기반을 뒀다면 강서양천민중의집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했고, 사업과 운영에서도 노동조합 혹은 노조 활동가들의 참여를 중시했다. 강서양천민중의집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공간’과 ‘노동’이다.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거점 공간,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노동을 조직하고 지역 차원에서라도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모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했고,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거점 공간을 매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동시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구성돼 있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25개 자치구를 6개로 분할해 관리하고 있다.

7 한국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 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유형근



하지만 지역 활동은 자치단체와의 교섭이나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자치구를 단위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 따라서 서울본부는 조직체계도 자치구 단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본부의 자원과 역량으로는 조직체계를 자치구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본부 이전 집행부에서 이러한 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초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오히려 아래로부터 자주적인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강서양천민중의집을 설립할 때부터 자치구 소재 노조 현황을 조사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노조와 만남을 만들어 내고 접촉을 시도했다. 비정규직 단위로 정규직 단위를 별도로 묶어서 모임을 진행하다 '강서구 노조 및 노동단체 대표자 모임'으로 통합해 매월 1회씩 모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10여개 단위가 참여한다. 때로는 참여 단위가 두 배로 늘기도 하지만 10여개 단위는 지속적으로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자 모임에서는 안전이 산별노조나 지역본부에서 논의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회의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회의시간 정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뒤풀이에서도 노조 관련 현안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회의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 모임이 노조의 공식 행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대표자 모임은 지역 내 사업장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조직할지를 집중 논의한다.

또한 지역 내 시민사회와 교류하고 지역의제에도 결합할 방안을 찾

는다. 예를 들어 지역 차원의 세월호 추모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보건의료 노동자 응원 활동을 함께 조직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함께했으며 매년 진행되는 위안부 기림일 공동행동에도 참여한다. 이뿐 아니라 나눔연대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김장나눔행사는 물론 일상적으로 도시락 나눔, 주거환경개선(강서양천행복나눔사업단) 등에 재정을 후원하거나 직접 참여하고 있다.

도시락 나눔의 경우 강서아이쿱생협의 봉사동아리가 도시락을 만들면 희망연대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이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서 배달을 담당한다. 이러한 매칭을 강서양천민중의집이 주도해 만들어 냈다. 아울러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한다. 노동 관련 의제 캠페인은 물론 아파트 경비노동자 소식지 공동 배포, 3·8 세계여성의 날 및 전태일 기념행사 등등을 지역 차원에서 대표자모임과 함께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사업이든 사전 조직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참여는 물론 필요한 자원도 만들 수 있다. 모든 일은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 내 노조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방문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해당 노조의 현안이 확인되면 지원 혹은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연대를 조직한다. 관료적인 방식으로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노조의 행정체계를 이용하면 오히려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다. '초청밥상'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연대를 조

직한다.

투쟁사업장이 생기면 집회 등에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음식을 함께 장만하고 조합원들을 초대해 식사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메트로9호선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됐다가 6개월간의 투쟁을 통해서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과정의 성과물이다.

이런 조직화 과정이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첫 번째는 단위노조 집행부 교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 노조 내부에 이른바 의견그룹이 있거나 기존 집행부와 성향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무척 힘들다.

아울러 지역 내 풀뿌리 시민사회와 연대를 만들어 낼 때도 어려움이 있다. 노조의 경우 매년 임단투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성과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역 내 시민사회는 관계지향이 훨씬 강하고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그러다 보니 대화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소소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운동이 진화하면서 다양한 의제운동 역시 등장하고 성장한다.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는 물론 노조도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조직화가 절실하다. 연대를 조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연대의 효능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대를 당위로만 할 수는 없다. 노조 입장에서는

투쟁에 돌입하면 산별 차원의 지원과 연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의 노조와 시민사회의 연대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시민사회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배가된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캠페인이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의 협조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인식변화가 생긴다. 시민사회는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노조는 지역의제는 물론 기후위기, 성평등,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이른바 상호침투가 이루어진다.

경험에 따르면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중매쟁이 혹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별노조 중앙이나 지역본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역의 중심노조가 있는 경우 그 역할을 한다면 바람직하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와 이화의료원노조가 비교적 규모도 있고 의지도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집행부 교체로 인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안정성을 가지려면 결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단체가 필요하다. 다만 비정규센터처럼 기존의 노동단체는 노동사업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를 조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사업과 지역사업을 병행하는 노동단체가 필요하다. 영등포를 기반으로 하는 '카페 봄봄'이나 안산의 '좋은이웃'이 대표적인 단체다. 강서양천민중의집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며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운동은 어떻게 다를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돼 왔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어서 진행된 운동은 노동조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인 협동조합의 효시로 얘기하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의 주체는 파업투쟁에 실패했던 노동자들이다.

또한 상당수의 진보정당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협동조합운동·진보정당운동을 포괄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적·도덕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운동으로 확장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가 상당수는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운동을 등치하는 경향이 있다. 인식 변화가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되 협동조합운동·진보정당운동·생활문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이 연대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아닐까 한다.

한편으로 변화된 주·객관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동자운동이 절실하다.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생활세계가 더욱 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터에 근거한 노동자운동을 고민할 필요가 생긴다. 사실 지역은 새로운 조직화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토대이기도 하다. 진보정당운동의 활성화 혹은 복원을 위해서라도 지역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산별노조

나 지역본부가 지역사업 총괄부서 설치를 고민했으면 한다. 비정규직 조직화 필요성이 생기면서 비정규직 관련 부서가 설치되기 시작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이다. 사회연대실 혹은 사회연대위원회 등 조건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층의 사회연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사회연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연대를 고민하는 부서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의 사회연대는 이후 정치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사업 국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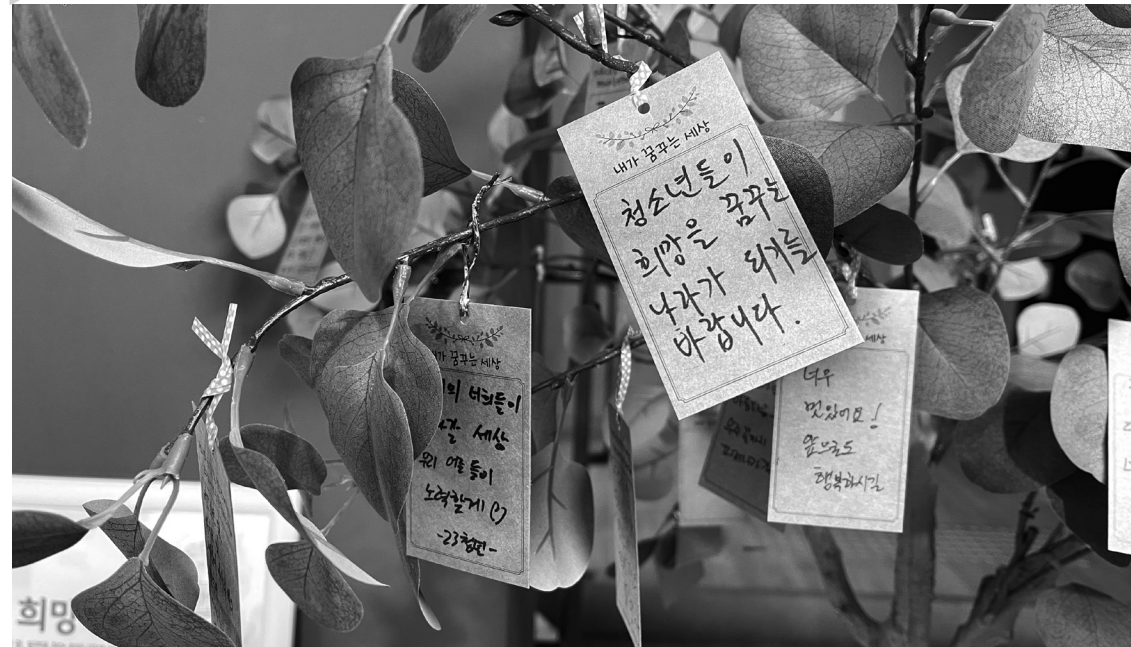
아울러 노동자운동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조합 조직률 증대’를 위해 노조가 주도하는 직접적 조직화 방식에서 탈피해 ‘조직화 방식의 다양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처럼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간접적 조직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즉 노조 조직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협동조합이나 협회 같은 다양한 노동자 조직 결성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노조보다 사회적 자원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될 수 있다. 조직화를 위해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도 사회연대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정의 실현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역공동체에 개입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노동과 지역은 만나야 한다.

Chapter

# 02

노동과 지역을 잇다, 희망씨 10년 







## 더불어 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

김은선

###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나눔연대 법인 설립하다!

지역사회운동노조, 희망연대노동조합

사단법인 희망씨는 2013년 11월 5일 희망연대노동조합(2022년 조직 전환으로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로 명칭이 바뀜. 이하 희망연대본부라 함) 조합원들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희망연대본부는 2009년 말 지역사회운동노조를 표방하며 설립됐다. 희망연대본부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투쟁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삶터와 일터의 변화를 일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꿈꾸었다. 2010년 1월 씨앤앰지부(정규직, 2019년부터 딜라이브지부로 명칭을 바꿈)가 산하 지부로 처음 조직됐다. 그리고 곧바로 희망연대본부는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씨앤앰에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했다. 투쟁 과정에서도 희망연대본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을 전면에 내걸고 싸웠다. 35일의 파업 끝에 마침내 2010년 11월 5일 씨앰지부는 투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2010년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지켜 낸 희망연대본부와 씨앰지부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연대활동을 실천했다.

노동조합은 지역연대를 모색하는 소모임을 구성해 '지역아동센터'나 '지역 집수리 단체' 등 지역사회 탐방에 나섰고,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단체 활동가들과 노동과 지역이 어떤 사업을 통해 함께 만날 것인지 논의했다.

한발 더 나아가 2011년 씨앰지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사회공헌기금 1억5천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노동조합이 주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고, 기금 전달 차원을 넘어 조합원들도 함께하는 '사회연대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씨앰지부가 확보한 1억5천만원으로 시작한 희망연대본부의 사회공헌기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 3억원이 됐고, 2013년 말에는 케이بل방송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에서도 3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했다. 그렇게 희망연대본부는 2014년에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희망연대본부는 초기부터 사회공헌사업의 내용을 아동청소년사업으로 정하고 사업 단위는 자치구별로, 사업 형태는 지역의 가능한 아동청소년 관련 단위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구성원이 돌봄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적 판단이 있었고, 이 돌봄망 안에는 노동조합도 하나의 주체로 지역에서 함께 사업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녹아들어 간 원칙이었다. 조합원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사업 대상으로, 때로는 자원봉사자로, 때로는 노동인권강사로, 때로는 사업의 주체로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결합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더욱 확장돼 가고 있다.

### 나눔연대 법인으로 지역연대의 확산을 모색하다!

2013년에 들어서면서 희망연대본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사사회공헌기금에만 의존해 지역과 결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희망연대본부는 노동자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변화와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희망연대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주축인 노조로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일하는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사업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노동조합 밖의 전문단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고민에서 희망연대본부는 전문기구 구성을 고민했다.

2013년 초 희망연대본부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나눔연대 법인'을 건설할 것을 사업계획으로 가결하고, 바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노동조합 지역연대사업의 필요성'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전문적인 기구 설립의 필요성'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 사는 사회

는 어떤 모습일까?’ 등의 주제로 간부·조합원들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토론의 결과물로 ‘나눔연대 법인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뜻을 같이하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법인의 정관 및 목적, 명칭, 건설 방법 등을 논의하며 법인건설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2013년 2~3월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은 9월 13일 발기인 대회, 11월 5일 설립총회를 통해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라는 이름으로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됐다.

## 더불어 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

사단법인 희망씨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자 중심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생활문화운동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희망씨는 노동자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 양육자, 돌봄종사자, 지역사회 등이 개입해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사업의 핵심으로 한다.

희망씨는 주요 사업의 갈래로 나눔·소통·노동인권·연대사업을 두고 있다. 나눔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인 ‘희망울타리·희망키움’사업과 ‘네팔아동지원사업’이 있다. 소통사업으로는 가족 간의 소

통과 공감을 위한 사업과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지원사업, 그리고 희망씨 회원사업이 있다.

노동인권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노동인식개선 활동과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사업은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지원, 다양한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연대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연계사업 진행, 노동자 직접 참여사업 발굴 등이 있다.

희망씨는 사업을 진행할 때 ‘시혜가 아닌 나눔’ ‘봉사가 아닌 연대’ ‘기부가 아닌 참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성장 과정 지원’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노동자 자신은 물론 사회의 변화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또한 각 활동 부문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희망씨가 지켜야 할 원칙을 잇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 어떤 차이도 차별이 되지 않도록, 희망울타리·희망키움사업

희망울타리·희망키움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성장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교복·신입학 지원, 생리대 지원, 교육문화 지원,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 위기가정 지원, 주거지원, 돌봄기관지원가정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자립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을 시기별로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자녀들과 가정까지 함께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다. 희망울타리·희망키움사업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환경, 주거환경, 장애유무, 성별, 국적, 학력 등 어떤 차이에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노동자’들의 연대와 나눔을 통해 돕는 희망씨의 핵심 사업이다. 초기에는 장기투쟁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 자녀들까지 포괄하는 교복·신입학 지원을 매년 초에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청소년 신입학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종료했다.

#### 위기가정지원사업

희망씨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케이블 통신 노동자의 특징을 살려 지역사회의 복지망 바깥에 있는 가정들을 복지체계로 연결하는 사업을 설계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복지망으로 연결하는 것에 착안해서 설계됐으나, 현장 노동자들이 연결한 사례는 고객 상대 노동자라는 한계(개인정보 보호, 업무 중 활동 등) 때문에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역 돌봄네트워크와 희망씨가 결합하면서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시작됐고, 희망울타리의 대표사업이 됐다.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에 희망씨도 한 주체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지원 체계에서 도울 수 없는 가정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기에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다.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초기 지침은 모든 기관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다. 어디에도 손 내밀 곳이 없던 사각지대에 놓

인 이웃들은 하나둘씩 희망씨의 문을 두드렸다. 희망씨가 상담을 하고, 가능한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면서 모두가 ‘거리 두기’를 하던 그 시기에 서로의 울타리가 되며 버틸 수 있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과 연결되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희망씨가 관계 맺고 있는 아동청소년 돌봄네트워크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과 기관의 사진과 사연 등이 희망씨에 접수된다. 이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동청소년 돌봄기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도배·장판, 전등 교체, 전선 정리, 페인트칠, 주거환경 정리정돈 등 노동자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환경개선부터 미납 공과금지원, 임대료지원, 수납가구 구입 등 주거비 지원까지 매년 7~8가정에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지역에서도 활발히 진행됐다. 연간 100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씨 하면 떠오르는 사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참여한 노동자들의 소회도 남다르다. 열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가정, 장애를 가진 두 자녀와 아버지가 거주하는 가정, 장애를 가진 미혼의 엄마와 심장병이 있는 아기의 가정 등 희망씨가 주거환경 개선으로 만난 가정의

상당수는 한 부모, 장애, 이주민 가정이었다. 우리 사회 사각지대의 가장 깊은 곳에 놓여 있는 이들이다.

희망씨는 희망울타리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청소년 사업 중심으로 '희망키움'사업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생리대지원사업과 교육문화사업, 자립청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 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생리대지원사업은 희망씨와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희망철도 재단이 함께 시작했다. 2017년에 시작한 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더욱 확대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장애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도 4년째 하고 있다.

희망씨가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며, 지역에서 연대사업을 같이하는 장애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슈화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분께 장애청소년들의 '월경' 경험, '생리대 선택과 착용의 어려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 여성 B씨와 대화를 하며 생각이 미처 닿지 못했던 곳에 다다를 수 있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월경 용품들은 일단 장애청소년들의 뒤틀린 신체구조와 적합하지 않다. 장시간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는 더 그러하기에 일부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아직도 유아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입는 생리대 가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착용이 불편해서가 두 번째 이유다. (중략) 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생리대에 조금만 묻기만 해도 생리대를 빼어 버린다. 그래서 사용하는 생리대의 양이 비장애인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러하기에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아버지와 생활하는 한 부모 장애청소년의 경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나의 몸을 다른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장애청소년들은 월경에 대한 교육은 커녕 가까운 이의 얼굴에 '또 시작이야?'라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할 때, 많은 자괴감을 느낀다. 상당 비율의 장애인들이 인위적으로 월경을 멈추는 선택을 타의로 하게 되기도 한다. (중략)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양호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 한 번 벽에 부딪힌다. 불편한 몸으로 쉬는 시간 10분 동안 생리대를 교체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 선생님과 친구들 눈치도 봐야 한다."

B씨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첫 월경을 시작했을 때 엄마의 얼굴에, 활동보조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아닌 TV에서 보는 것처럼 장미꽃도 받고 축하도 받고 싶다."

희망씨는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생리대가 지급되도록 하는 활동도 전개했다. 서울시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에서 2019년부터 활동하며, 청소년 월경 용품을 서울시가 보편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조례는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 청소년 교육문화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문화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이 어느새 대학에 진학하고, 희망씨의 각종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2022년에는 미술을 공부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예술가 전시회’도 개최했다. 전태일기념관 1층 상설 전시장에서 시작한 이 전시회는 많은 분의 요청으로 강북노동자복지관 1층에서 앙코르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희망씨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한 청소년의 말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길게는 4년, 짧게는 수개월 만났던 청소년들이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시회는 기획·준비·제작·전시 전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본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상, 그리고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전시회를 마치고, 청소년들은 이런 소회를 밝혔다.

“희망씨를 만나고 미술학원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었고, 작품 전

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았어요. 저도 어른이 되면 꼭 청소년들에게 제가 잘하는 미술이나 음악을 알려주며 받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TV나 인터넷에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에 모습만 알았지, 이렇게 많은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지 처음 알았어요. 노동조합의 이런 활동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요.”

### 자립청소년 지원사업

2021년부터 희망씨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자립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든든한 선배 노동자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사업으로 2023년 벌써 두 번째 기수의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주요 사업 참여자이고, 첫 번째 참여자들은 1년의 과정을 마치고 자조모임으로 다시 만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립청년 지원체계가 얼마나 세분화돼 있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지 알아가고 있다. 지원하는 제도는 많은데 이 많은 정보가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제도인지, 적절하게 안내되고 있는지, 정보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희망울타리·희망키움사업을 진행하며 항상 고민되는 지점은 우리의 사업이 ‘시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지점이다. 사업



시작 전에 비청소년 참여자들, 노동자들과 함께 꾸준히 사업을 점검하고 ‘인권’감수성을 함께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네팔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네팔아동지원사업

네팔아동 학교보내기사업은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신미고)와 함께 네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론 단순한 원조를 넘어 해당 가정과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포카라지역의 학교 짓기 및 운영지원’ ‘뿔뿔지역의 급식비지원’ ‘급식비지원을 위한 저금통 모금사업’ ‘네팔아동결연’ ‘네팔나눔연대여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씨는 네팔 아동사업 역시 단순한 일회성·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아동이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 내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사업, 생존-성장-발달과정을 지원하는 연대사업,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화 사업’이라는 사업방향을 가지고 네팔 아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포카라 학교건립 및 학교운영지원

희망씨는 포카라에서 (주)딜라이브와 희망연대본부가 단체협약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중 일부로 학교를 짓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포카라는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로 20여분, 차

량으로 하루가 꼬박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트레킹 시작 지점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 (주)딜라이브와 희망연대본부가 단체협약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건설한 학교인 ‘머시라버거르 희망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머시라버거르 희망학교는 2013년 첫 삽을 뜬 이래 2층으로 증축하고, 매년 7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네팔 정부가 공립학교로 인가했다.

애초 이곳은 채석장 마을로, 강가 옆 땅에 무작위로 정착한 채석장 노동자들이 조성한 마을이었다. 학교는 물론이고, 변변한 공공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걸어서 몇 시간 걸리는 인근 학교로 가야만 했다. 2012년 처음으로 네팔을 방문했던 희망연대본부 네팔 여행단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한국으로 와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네팔 포카라연방 노총과 신미고, 희망연대본부는 이곳에 학교를 짓기로 했다. 노동조합이 네팔이라는 타국에 학교를 짓고 운영하는 일이 가능할까? 국내에서 설왕설래가 많았다. 하지만 네팔 현지의 바람과 딜라이브지부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모든 우려를 잠재우고 꿈을 실현하게 됐다. 강을 가로지르던 돌다리를 튼튼한 철교로 탈바꿈하면서 강 건너 마을 아이들도 다니는 학교로 규모가 커졌다.

네팔의 새학기는 4월에 시작한다. 포카라학교는 4월에 종업식을 하는데, 매년 네팔 사업 실무단이 이 시기에 학교를 방문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1년 동안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축하하는 시상과

장기자랑 등을 한다. 종업식에서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는데, 상품 상당수는 네팔 방문을 위해 한국에서 모은 후원 물품들이다.

### 빨벗학교 급식비지원 및 시설개선

희망씨는 빨벗지역 공립학교에 급식비지원과 아동결연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씨와 희망연대본부가 후원하고 있는 빨벗지역 학교는 공립 학교임에도 포카라지역 학교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워낙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탓에 정부 지원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이 지역이 불가촉천민 거주지역으로 분류돼 경제적으로 낙후됐고 주거환경은 매우 비위생적이었다. 주민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엄두도 못 냈다.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아이들을 채석장으로 내보내 돌을 깨는 노동을 하게 하거나, 집에 방치하기 일쑤였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간식을 주는 노동 현장이 차라리 좋았다고 한다.

2012년 희망연대본부 나눔여행단이 빨벗지역을 둘러보고 나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도 이 지역의 열악함과 아이들의 상황이었다. 여행단은 학교 측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만 있으면 나오게 되리라고 이야기했다. 여행단은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들 급식비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고, 지금의 저금통 사업을 생각하게 됐다.

처음에는 식기류 값과 매달 25만원 급식비를 저금통 모금으로 모아서 네팔에 보냈다. 현재는 희망연대본부 조합원들과 지역단체 회원들이 저금통 모금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희망씨가 사업비를 투여해

매월<sup>8</sup> 35만원을 네팔에 보내고 있다. 급식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태양열 샤워시설 설치, 아이들 교복지원 등 사업을 이어 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아동결연 사업도 하고 있다.

### 빨벗학교 아동결연

빨벗학교는 3학년까지만에 운영하지 않는다. 4학년이 되면 인근의 큰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3학년만 몇 년째 다니기도 한다. 희망씨와 희망연대본부는 아이들이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아동결연 사업을 계획했다. 노조 혹은 단체와 아이 한 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아이들 30명이 희망연대본부 각 지회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카톨릭대병원분회,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아자동차현장조합원모임 등과 연계돼 인연을 맺고 있다. 아동결연은 결연된 아동의 가정 경제를 지원하는 금액도 포함돼 있다. 아이가 1년 동안 학교를 잘 다니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을 하는 비용만큼을 아동결연 금액에 포함해 적립했다가 1년 후에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가정생계지원비는 닭도 사고, 돼지도 사고 하는 방식으로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방

8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빨벗지역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채 5명도 안 됐다. 그러나 급식비 후원을 하고 나서 10명씩 20명씩 늘어났다. 현재는 30명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저금통 후원액도 현재는 월 35만원이 됐다.

식 때문에 네팔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사업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 긴급지원

희망씨는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긴급하게 네팔민중돕기 모금 운동을 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뿔뿔지역 쿠스마시 시장에 가서 연락을 받고 쿠스마시 전체 주민에게 쌀을 지원하는 사업을 두 차례 진행했다.

### 나눔연대여행

네팔아동지원사업의 백미는 나눔연대여행이다. 포카라머시라버거르 희망학교와 뿔뿔학교 방문을 가장 주요한 축으로 한다. 네팔 나눔연대여행은 조합원과 지역주민까지



포괄해 여행단을 모집하고 8박9일 일정으로 다녀온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지 논의하고, 신미고 활동가들과 이주노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네팔의 자연을 만끽하는 트레킹을 끝으로 짧은 여정을 마무리한다. 네팔 나눔연대여행에는 많은 노동자가 참여한다. 여행에 함께한 노동자들은 '나눔연대사업의 전도사

가 되기도 한다.

화섬식품노조 봉제인지회-봉제인공제회는 2019년부터 매년 특별한 선물을 뿔뿔학교에 선사하고 있다. 다름 아닌 뿔뿔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복이다. 봉제인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살려 직접 제작한 교복과 체육복을 매년 네팔의 작은 마을에 선물한다. 노회찬재단과 전태일재단에서 함께한다.

###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하는 소통사업

소통사업은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사업,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가족지원사업으로 '가족캠프' '아버지학교'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힐링캠프' '힐링타로' '치유하는 글쓰기' 등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서적 교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정의 형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정 내에서 서로의 공감과 공유, 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희망씨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고민했다. 가족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남성노동자가 대부분인 희망연대본부 특성상 우선 남성노동자의 가정 내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에 주목했다.

## 가족캠프

부부간 진솔한 대화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2013년 가을 처음으로 시도한 '부부소통강좌'가 큰 호응을 얻었다. 내실 있는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어 내려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기획이 적중했다. 토요일 하루 5시간만으로는 아쉽다는 평가가 터져 나옴에 따라 이듬해부터 가족캠프 형태로 진행했다. 첫해에는 가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노동조합 교육이 주가 될 것”이라는 편견, “조합원(남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배치되고 배우자와 자녀는 뒷전일 것”이라는 인식, “모르는 사람들과 1박2일 다녀오는 게 불편할 것”이라는 걱정이 뒤섞였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고 1박2일이 지난 후에 돌아갈 때 가족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행복해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희망씨는 가족 간 소통과 대화가 부족하고,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조합원들의 특성에 주목했다. 캠프의 핵심 목표를 '부부간의 대화와 공감 그리고 힐링'에 뒀다. 자녀 양육하느라, 경제활동 하느라 힘들었던 조합원들에게 '부부만의 시간을 온전히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부부 프로그램 시간에 서로 등을 맞대거나 서로의 눈을 보며 춤으로, 이야기



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맺었던 것들을 풀어내는 가족들이 생겨났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더라도 썩어 낀 앙금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를 떠나 서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위안을 받는 조합원 가족들을 보면서 울컥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한 부부만의 시간을 위해 어린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으면, 엄마에게 쫓르르 달려가기 때문이다. 가족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가족캠프는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던 2년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다.

## 아버지학교

희망씨의 가족프로그램으로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아버지학교'다.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 '남성'들이 져야 할 삶의 무게를 나누고 아빠와 자녀 사이에 공감과 소통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아버지학교는, 2015년부터 연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버지들만의 힐링의 시간을 갖거나 자녀들과 아빠가 함께 떠나는 캠프 형태로 진행되는 아버지학교는 의외로 지역사회에서 반응이 매우 좋았다. 아버지학교를 처음 준비할 때 지역사회에서는 종교 관련 프로그램은 아닌지, 노동조합이 이런 캠프를 진행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기도 했다.

캠ป์를 마치면서 함께 참여한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노동조합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게 많이 낯설었는데, 정말 좋았다.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합을 다시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며 놀라워했다. 아버지학교와 가족캠ป์ 예산이 딜라이브지부 노사사회공헌기금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을 듣고, 노동조합 활동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첫해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다.

“중학교 졸업선물 같다. 너무 좋았다. 아빠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

“아빠랑 이렇게 음식을 같이 만들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었다. 감사하다.”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이다.

두 번째 해에는 자녀들이 눈을 가리고 아버지 손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서도 아빠 손을 찾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캠ป์파이어 시간에 기어코 눈물을 터뜨리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 장기투쟁사업장 힐링프로그램

소통사업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투쟁을 하며 지쳐 가는 조합원들과 ‘타로’라는 매개를 통해 다시 한번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시간을 갖는다. 2022년에는 타로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활센터와 연계해 ‘천연비누 만들기’ 등도 진행했다.

희망씨는 다양한 공간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케이블

통신 기사, 콜센터 노동자, 학습지 교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등 여러 분야 노동자와 힐링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한다. 마음챙김 명상, 힐링캠ป์, 힐링타로, 치유하는 글쓰기, 사진강좌 등 노동자들이 마음을 돌보고 일상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일회성 만남이 되지 않도록 자조모임을 구성해 활동가가 아닌 개인으로 위로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사업

노동인권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노동인권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역단위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과정’ ‘산재가족지원사업’ ‘노동인권 교안개발’ 등을 하고 있다.

희망씨 노동인권사업은 2012년 시작한 희망연대본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에서 태동했다. 노조 내에 노동인권교육팀을 꾸렸는데



“노동자의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기” “노동자 권리목록” 등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고 정리해 나갔다. 동시에 성북지역에서 청소년 인권캠프를 함께 준비하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현재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기점이 됐다.

###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노동인권교육팀은 희망씨가 설립되면서 2014년 ‘희망씨-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인권팀’으로 재구성됐다. 노동인권팀을 중심으로 서울 각 지역에서 ‘지역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교육’과 ‘후속모임 지원’ ‘학교로 들어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했다. 활동가 양성과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노원지역, 강북지역, 강동지역, 송파지역, 용산지역 등 여러 곳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졌고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결성의 매개 역할을 했다.

희망씨는 신규활동가 양성과정과 후속모임 지원을 진행하며 지역의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민사회 활동가, 전업주부, 노무사, 특성화고 졸업생 등 다양한 경력과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공부하고 토론하고 강의하고 캠페인을 했다.

### 지역사회 노동인권교육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에 주목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해 온 이들

이 ‘구로구지역아동센터’ 소속 선생님들이었다. 희망씨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노동’에 주목했다. 돌봄 노동자 스스로 노동의 주체가 되는 과정을 돕고자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구로지역이 대표적 사례인데 2013년 희망연대본부 사회공헌사업으로 처음 시도됐다.

당시에는 두 시간 동안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한 뒤, 다른 구조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듬해에는 희망씨 노동인권팀 중심으로 2시간씩 3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에 주목하도록 했다.

2015년에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시간씩 세 차례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다시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했고, 후속 사업으로 ‘노동조건 개선 컨설팅’사업을 진행했다. 일상적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헌신하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이들 앞에서 내 권리를 찾는 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단 한순간도 자신의 ‘노동’을 주목하거나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이들이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노원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전국지역아동센터 교사협의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교육도 했다.

2018년 희망씨는 한때 광진구 ‘민방위 교육생’들에게도 노동법 교

육을 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갑작스러운 의뢰로 시작된 교육은 매우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께맞춰 이뤄졌지만,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노동하는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노동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을 마치고 난 뒤 강사의 후일담이 현재까지도 머릿속에 맴돈다.

“집에서 저녁때 치킨을 주문했는데, 주소를 잘 못 찾아서 한참이나 뒤에 왔어요. 그런데 배달하시던 분이 나를 보고 ‘민방위 교육 때 노동법 교육하셨던 분 아니냐?’고 물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합부로 못 돌아다니겠어요.”

이처럼 노동인권사업은 지역의 미조직된 노동자들과 만나고, 지역사회 내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다양한 노동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사업이다. 이들의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연대하고, 그 근거리에서 노동조합이 함께한다면 더욱 큰 힘을 받을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질 것이다. 희망씨는 이 부분에 착목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 노동조합 내 노동인권 소모임, 병글노동

‘청소년 노동권’에 주목하고 실천하는 일은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지지하고 지키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노동’과 다양한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희망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함께하기 위한 활동을 만들어 내려고 고민하고 있다.

희망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중심이 된 노동인권 소모임 ‘병글노동’이 그것 중 하나다. 2015년 첫선을 보인 ‘병글노동’은 현재까지 매우 높은 참석률로 운영되고 있다. 병글노동은 구성원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주목하며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 방향을 찾는 모임이다. 2015년 초반 희망씨 노동인권팀이 주최한 “희망연대노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계기가 돼 구성됐고, 그 후속모임으로 안착했다.

병글노동은 청소년 노동권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세미나도 열고 우리 주변의 인권 이야기를 나누며 <빵과 장미> <푸드 주식회사> <런던 프라이드> 같은 영화도 보며 매달 정기모임을 이어 가고 있다. 모임 덕에 현장 노동자이면서 노동인권 강사로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희망연대본부 조합원들이 늘어 가고 있다. 희망씨는 현장 노동자들이 강사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노동조합 내부 노동인권교육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하는 교육은 노동조합 소개, 노동조합의 조직과 단결력 강화, 간부의 역할과 자세, 투쟁 시기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역할, 교섭전략 등이 주가 됐다.

한정된 교육시간에 모두 배치하기에는 벽찬 내용이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해 조합원 총회나 교육시간을 이용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 딜라이브지부의 교육은 과히 혁신적이었다. 최근 몇 년 새 희망연대본부 소속 지부들 중 일부가 신입조합원 교육시간을 정례화하기 시작했고, 2018년 들어서는 신입조합원교육 중 한

꼭지를 노동인권교육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씨는 조합원들과 호흡할 수 있는 교안을 만들고 교육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 노동인권사업의 새로운 모색 노동인권, 학교 밖 청소년 만나다

희망씨는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으로 시작한 노동인권사업의 방향 전환을 2019년부터 모색하고 있다. 활동가 양성과정과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이 주었던 기존 사업은 이제 지역마다 자체 동력이 형성됐고, 훨씬 강화된 지역별 조직적 틀을 갖춰 진행되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도 최근 몇 년간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내에 설치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가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해 왔다. 이런 흐름 속에 희망씨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 학교밖청소년 등과 직접 호흡하는 노동인권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자립청년 노동인권교안개발사업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시설에서 양육돼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예비자립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역량강화교육 커리큘럼으로 '노동'파트가 포함됐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아동자립지원단'은 이 노동파트 교안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매

뉴얼을 제작하며, 직접 강의할 파트너로 희망씨를 선택했다. 희망씨와 서울시아동자립지원단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자립청년 인터뷰부터 세 달여간의 교육 일정에 쓰일 '입사에서 퇴사까지 알아야 할 노동상식, 노동법, 노동자 건강권, 직장 내 괴롭힘' 내용으로 교안과 교수학습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동네노동권찾기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에게 배포할 '노동권리수첩'도 제작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회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안학교협의회와 하는 '일터체험'도 유의미한 사업 중 하나다. 서울지역 학교밖청소년들이 선배 노동자들의 일터에 직접 방문하고, 노동조합 관련 이야기를 나눈다. 청소년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노동'과 '노동조합'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원인 선배 노동자가 주도해서 자신의 일터를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일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소개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 산재사망(중증장애)가족 지원

희망씨는 2021년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산재사망(중증장애)노동자 가족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일터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해 재해를 당하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업의 산재 예방 활동은 부족하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산재와 관련한 이슈가 많지만 희망씨가 주목한 것은 산재노동자 가족이다. 희망씨가 위기가정지원사업을 하면서 만난 노동자 가

정 중 상당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계기가 '산재'였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도 그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다. 산재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주위의 시선, 산재 소송 진행 과정의 어려움 같은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다.

그 밖에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 진행해야 할 복잡한 행정절차, 소득원 상실로 인한 막막함, 중증장애로 인한 가족 간 소통 단절, 자살 유가족을 향한 친인척들의 언어폭력 등 맞닥뜨리는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산재 가족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희망씨는 이런 산재 가족들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을 보듬을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여론화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실제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더욱 강화하고 싶은 사업 영역이다.

2023년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진행된 비정규활동가지원사업도 매우 유의미하다. 희망씨는 행정적 실행기관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 비정규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길 바란다.

## 희망씨의 연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나눔문화를 확산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희망씨는 '전문성! 노동자성! 연대성!'을 사업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

법인에 마땅히 있어야 할 '전문성', 노동자 서민이 주체가 돼 자발적 나눔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는 '노동자성', 그리고 그것을 지역의 공동체와 연결하는 '연대성'은 희망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 원칙이다. '전문성·노동자성·연대성'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놓락하지 않다. 그러하기에 희망씨 활동가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때 순간순간 많은 고민을 하고, 발품을 팔게 된다.

그러나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씨 존립 자체가 '노동자들의 자발적 나눔문화 확산'에 있기에 놓칠 수 없는 것들이고, 이것이 희망씨를 구성하고 있는 근간이기에 희망씨 활동가들은 오늘도 삶의 터전인 지역 곳곳과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으로 발품을 판다.

희망씨는 이러한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기보다 노동조합들과 연대하며 노동조합들이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과 연대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함께 만든 희망철도재단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료연대본부,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화섬식품노조 봉제인지회·봉제인공제회, 금속노조 서울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에 이르기까지 희망씨는 노동자들이 나눔과 연대의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역과 노동자의 연결

희망씨는 희망연대본부 사회공헌사업단, 자치구 위기아동돌봄사례회의, 이주아동돌봄네트워크 등 희망씨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네트

워크에 결합하고 있다. 각각의 네트워크는 구성 주체들에 따라 사업적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당연히 네트워크 참여 단위로서 희망씨의 역할도 각각 다르다.

노동자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회공헌사업단의 경우 희망씨는 실무 지원이나 노동자 조직화 영역을 맡아 집수리나 과일나눔, 간식배달 등에 함께한다. '식도락'이라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 식당이 있다. 한 끼 식사비가 1천원이다. 희망씨는 식도락과 매월 두 번, 과일나눔 및 배식 자원활동을 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 초기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용산지역의 딜라이브지부·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딜라이브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조를 나눠 참여했다.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과일을 구매해 식도락에 도착하면 배식 준비를 마치고 과일을 씻고 다듬고 설거지를 하는 데 30~40분 정도 소요된다. 식도락 점심시간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참여한 조합원들도 1천원씩을 내고 함께 식사를 하며 주민들과 답소를 나누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식도락에도 변화가 생겼다. 의료서비스가 충분치 않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은 코로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휴업을 한 식도락은 마냥 문을 닫고만 있을 수 없었던 터라 '포장배식'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희망씨는 일회용기 비용을 지원했다. 과일나눔 형태도 이때부터 포장배식으로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조합원의 참여에는 한계가 생겼다. 그러함에도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희망연대본부 전임자들과 신용보증채

단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서양천행복나눔사업단 역시 희망씨가 2014년부터 꾸준히 함께하는 곳이다. 희망연대본부 케이블방송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사회공헌기금을 씨앗으로 이곳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되게 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주노동자 건강검진사업, 어르신 건강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했으나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가 주축인 이 사업은 희망연대본부 강서지역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10여년간 사업을 이어 오면서 행복나눔사업단은 더 많은 지역단체의 참여와 더 많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진행된 것이 아이쿱생협과 함께하게 된 '간식배달, 반찬배달'사업이다.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정규직지부의 사회공헌기금이 일부 씨앗이 되면서 시작한 이 사업은 라이더유니온 강서지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활발해졌다.

라이더유니온은 이 사업이 계기가 되어 다양한 지역에서 배달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다른 노동자들의 참여 계기가 된 것이다.

광진구의 경우 희망씨가 민관 사례회의의 한 단위로 결합하고 있다. 이곳에서 희망씨는 아동지원단위로서 자치구나 다른 민간단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위기가정 지원 혹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과 노동조합의 연결

초기 희망씨와 희망연대본부의 시도는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모두



에게 낯설었다. 다양한 노동조합에서 사례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20~30분, 길게는 한 시간 사례를 얘기한 뒤에 돌아오는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규노조라 가능했다.”

“우리 노조는 희망연대노조와 다르다.”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을 노동조합이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10년이 지난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처한 조건이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희망씨는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희망철도재단’과 7년째 함께하는 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희망철도재단과는 재단 설립 시기부터 인연이 있다. 2년 앞서 설립한 희망씨에 철도노조 간부들이 ‘재단 설립’ 과정을 상담받았던 인연이 이후에 ‘생리대지원’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재원의 한계로 ‘선착순’ 지원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배송은 자택배송을 원칙으로 지원받는 청소년의 불편을 최대한 덜었다. 1년치 생리대를 다양한 사이즈로 지원하면서 파우치와 노동인권수첩 등도 함께 배송했다. 현장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희망철도재단과 같은 생리대 지원사업이 계기가 되어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는 ‘장애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을 4년째 이어 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조합원 ‘모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매년 500만원 이상의 재원으로 장애청소년들의 체형에 맞게 생리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자택배송’을 한다. 이 사업을 위해 희망씨는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사업 필요성’을 발제했다.

초기에는 장애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 토론회’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회연대사업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투쟁사업장이 많은 노조 특성상 사업 외연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희망씨가 다양한 노동조합과 연계하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된 사업은 ‘네팔나눔연대여행’이다. 희망씨는 여행단을 모집할 때 여러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함께 홍보한다.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 2017년에는 서울 광진구 주민들도 대거 참여했다. 누구나 그렇지만 네팔을 여행한 이들은 이국적인 문화와 히말라야 설산이 주는 풍광에 매료된다.

그런데 네팔나눔연대여행에 참여한 이들은 여행기간 중에 만난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기억난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며 ‘추억’을 만들고,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함께할 방안을 고민한다. 이런 마음들을 엮고 있는 것이 ‘네팔아동결연’이다.

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의 각 지회에서 시작된 아동결연은 어느새 30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함께하는 노동조합도 다양하다. 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LG유플러스한마음지부·LG헬로비정규직지

부·다산콜센터지부·방송스태프지부·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본부 전주지역모임·강원지역조합원, 기아자동차 현장모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대구카톨릭대병원분회,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2016년 네 팔나눔연행단 등 참여하는 단위도 다양하다.

2021년 들어 희망씨는 더 다양한 노동조합들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생활문화위원으로 결합하며 서울본부와 협약을 맺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가맹 산하조직의 사회연대·지역연대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본부 사례에서 자세히 기술했던 것처럼 ‘자립청소년 지원사업’을 3년째 이어 오고 있는 것도 사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한 예다.

이뿐 아니라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사회연대협약을 맺고 서울지부의 사회연대사업을 협력하고 있다. ‘학교박청소년 일터체험’ ‘자립청소년 지원사업’ ‘이주배경아동지원 사업’을 큰 줄기로 각 사업마다 조합원들을 참여하게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회연대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대안교육협의회·용산교육복지센터·(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단체 방문, 공동실무 협의를 하며 금속노조 서울지부의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 지원사업에 그치지



지 않도록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서울시대안교육협의회 소속 3개 학교 청소년이 TK 엘리베이터지회와 케이카지회 주선으로 일터체험을 했다. 또한 용산교육복지센터와 함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조합원들이 직접 교류하는 ‘달려라 따릉이’사업을 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조합원들과 이데미쯔분회 조합원들이 경기북부 일대의 어르신 가구에 ‘순간온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은 고무적이다. 참여한 조합원들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리들만을 위해 달려온 것은 아닐까” 혹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속노조가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 청소년과 노동자의 연결!

희망씨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과 노동자들의 직접 만남을 추구한다. 일터체험, 자립청소년 지원사업 등이 그렇다. 생리대 지원사업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노동인권수첩’을 배포하고, 동의한 청소년들에 한해 ‘노동법 퀴즈’를 정기적으로 보내면서 청소년들과 끈을 이어 오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소모임 병글노동과 함께 수년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도 준비했다.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 노동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 크게는 긍정적인 ‘노동’에 대한 경험으로 일터에서 ‘노동조합’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 희망씨와 협력하는 노동조합

노조명	사업내용	협력단위
희망연대본부		
델라이브지부	가. 사회공헌기금 - 위기가정지원 사업, 가족캠프, 주거지원사업, 네पाल카라학교운영비지원 등 나. 네팔아동결연 - 강동지회 등 7개 지회 진행 중	
HCN비정규직지부	자립청소년돌봄시설지원, 인터넷시설개선 등	봉천동나눔의 집 행복한우리집그룹홈
방송스태프지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양천지회 등 5개 지회)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강북기술센터지회 등 2개 지회) 다산콜센터지부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1기 집행부, 강원모임) 전주지역사회연대위원회	네팔아동결연	신미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동자동사랑방 과일나눔	동자동사랑방
희망철도재단	서울청소년생리대지원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장애청소년생리대지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생활문화위원회사업 자립청소년 지원사업 김장나눔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립청소년 지원사업 - 자조모임지원, 그룹홈지원 이주배경아동지원사업 한글교육지원, 달려라 따릉이 - 학교밖청소년 일터체험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용산교육복지센터 서울대인교육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현장 모임 '전망' 2016년 네팔나눔여행단	네팔아동결연	신미고
서울교통공사노조	네팔아동결연 온누리상품권지원(2022년)	신미고 전태일재단(2022년)
화섬노조 봉제인지회-봉제인공제회	네팔뽕뽕 교복지원	전태일재단 노회찬재단 신미고

## 희망씨는 꿈꾼다, 청소년과 노동자 사이를 잇다

### 노동중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희망공간 아띠 건립을 추진하며

희망씨는 2019년 내부 논의를 통해 노동자들과 청소년이 만나 '노동'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2020년 세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공간 마련을 위한 기금 5억원 모금을 시작했다.

희망씨는 다양한 단위들과 아동청소년 지원활동을 하며 너무도 명확한 명제에 도달했다. 돌봄 사각지대, 취약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는 정확히 '노동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돌봄의 문제는 양육자(주로 부모가 양육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양육자의 형태가 있어 양육자라 한다)의 노동 문제와 직결됐다. 양육자들의 임금·해고·산재 등 노동조건과 아동청소년의 돌봄·빈곤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와 노동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었으며,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지원대책과 예산 배분 등 모든 것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직결되는 요소들이었다. 결코 복지 혹은 청소년 관련 요소들로만 분리되지 않았다.

아쉽게도 이렇게 밀접한 노동 문제를 우리 지역사회는 제대로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양육자의 노동 문제를 우리 사회는 '돌봄'과 '교육', '양육자 자질'의 문제로 치환해 분리했으며 개인화했다. 동시에 돌봄노동

자의 '노동'도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희생'과 '사명'으로 강요하며, 그들의 노동을 주목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건강하지 못한 노동환경,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이 아동청소년의 불안정한 돌봄과 정서적 문제로 직결되는 것을 희망씨는 다양한 활동과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다.

청소년 자신들의 노동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노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갈 아동청소년들에게 노동은 없다. 오로지 입시와 경쟁으로 얼룩진 '직업'만 남아 있다. 그런 속에서 사회로 첫발을 내디딘 청소년들의 절망에 사회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하는 연간 2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활동법) 제11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1년 기준 전국에 314개에 불과하다.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전국에 800개가 되지 않는다.

지역사회는 노동은커녕 청소년 모임 공간조차 태부족이다. 지자체마다 청소년 담당 부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외려 존재위기에 놓여 있다. 2022년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청소년 예산은 3%로,

2021년에 비해 0.2% 확대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아동수당, 요보호아동지원, 아동학대 및 피해 예방 등에 집중돼 있다. 청소년의 문화 활동 및 공간 관련 예산은 시설 운영비 수준이다. 이런 사회·제도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어떤 노동을 할 것인지, 나의 노동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노동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노동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희망씨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 갈 '희망공간 아띠'는 청소년들과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만남과 연대를 꿈꾼다. 문턱이 없는 공간으로 장애, 성별정체성, 경제적 유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함께하며 '노동'을 이야기하고 선배 노동자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아띠는 친한 친구라는 우리말로, 노동자와 청소년이 친구가 되는 공간을 뜻한다. 노동인권교육, 노동현안 토론, 청소년 상담, 청소년 작품 전시, 청소년 문화공연 등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공간을 상상하고 있다.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 매일 100원씩 벽돌기금을 납부하는 노동자들부터,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2021년부터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희망씨는 아띠 건립을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과 후원회, 후원주점 등 후원행사를 진행했다.

희망공간 아띠는 2025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건물 매입을 기본안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공간을 꾸밀 단위는 어떤 곳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기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고심이 짙다.

정부나 지자체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개미처럼 한 톨 두 톨 모아 가며 만들고 있다. 더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아띠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희망공간 아띠가 설립되고, 이어 아띠 2호점 3호점 등 노동자 중심성을 가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전국 곳곳에 설립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자가 청소년들과 직접 노동을 이야기하고, 경쟁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노동! 자기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대가 펼쳐지는 공간이 아띠를 시작으로 곳곳에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어른들이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거면 돼요.”**

- 청소년이 말하는 희망씨 공간

“청소년들은 이런 공간이 필요할 거야” 하는 어른들의 생각 말고 진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무엇일까? 그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 희망씨에서 수년째 미술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물었다.

**- 희망씨는 어떤 공간이면 좋을까요.**

“저희에게는 어른들이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거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돼요. 저희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고 길을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의지하고 힘을 낼 수 있어요.”

**- 희망씨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친구들과 만나 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다면 함께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음~ 함께 미술작품을 만든다든지 앨범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요.”

**- 꿈 이야기는 주변 친구들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친구들은 ‘어떤 학교 갈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같은 얘기를 해요. 꿈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꿈이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다를 것 같아요. 그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선생님, 희망공간 아띠 리플릿에 있는 것처럼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는 1층에 장애청소년 일러스트가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장애청소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학교라는 곳은 특수반, 특수학교로 나눠 장애청소년들과는 함께 생활할 수 없게 구조화돼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희망공간 아띠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간일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공간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데?’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하곤 했다. OO이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씨 공간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청소년과 선배 노동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 노동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을 만들고,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펼쳐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흐뭇했다. 동시에 ‘희망공간 아띠’ 건립에 더욱 큰 부담과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동력이 되어 희망씨도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다들 직업을 떠올리고 나열한다. 직업이 곧 꿈이 되어 버린 요즘이다. 꿈은 직업이 아니라는 걸,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꿈을 하나씩 실현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작은 나눔, 일상의 행복: 나눔활동 참여 노동자 수기



## 가슴이 따뜻해지는 노동조합 활동! 멋지지 않나요?\*

김은선

10월 18일 아침, 서울 ○○구의 어느 한 주차장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날은 구청과 복지관에서 긴급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준 가정의 '집수리'가 있는 날이었다. 이 집에는 어머니와 20대 아들, 10대 딸, 일곱 살 아들 그리고 20대 아들의 8개월 된 아기. 이렇게 3대가 거주했다.

희망씨가 집수리를 위해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집에 8개월 된 아기가 있는 환경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희망씨는 긴급하게 환경개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기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구청과 복지관과 상의해 기존에 아기가 쓰던 물건들은 모두 버리고 수납장, 아기 이불, 베개 등을 구매했다. 주변 단체에는 아기 옷이나 젖병 같은 후원물품을 요청했다.

\* 매일노동뉴스 가치모아 연재글

작업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방마다 정리돼 있지 않은 물품들이 즐비했다. 물품을 옮기거나 벽지를 뜯을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바퀴벌레들이 튀어나왔다. 냉장고 칸칸마다 새까맣게 바퀴벌레 알들이 있었다. 싱크대 서랍을 열고는 기겁했다. 물건을 옮기면 새까맣게 모여 있던 바퀴벌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곤 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본 조합원들은 기함할 듯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으로 발로 하나둘씩 거의 기계적으로 바퀴벌레들을 퇴치하면서 물건들을 버릴 것과 유지할 것으로 정리해 나갔다.

작업하는 내내 조합원들 머리 위로 바퀴벌레가 떨어지고, 옷 속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마스크에서도 기어 나오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어떤 조합원은 바퀴벌레 알레르기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중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집수리는 같은 동네 주민들에게도 화제였다. 집에서 나온 엄청난 폐기물로 인해 구청에 민원이 속출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구청 청소과에서도 나왔을까. 이날 구청 여러 주무부서들이 총출동했다. 그것이 오히려 잘된 측면도 있다. 현장에 있던 복지과와 협의해 폐기물을 한 번에 구청에서 처리했고, 도저히 다섯 명이 음식을 해 먹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싱크대는 현장에 나와서 이 상황을 지켜본 구청 청소과장이 직권으로 교체하기로 약속했다.

상황이 이러니 집수리 과정 내내 조합원들의 몸도 마음도 당연히 힘들었다. 그러함에도 8개월 된 아기를 생각하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아침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가 다 돼 마무리됐다. 집수리에 열

여섯 명이 온종일 달라붙었는데도, 짐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마감하게 돼 마음 한편이 매우 무거웠다고 한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어머니께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다.

“잘 살겠다. 이제 잘 살아 볼 용기가 난다. 잘 살겠다. 정말 고맙다.”

깊은 우울감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어 지역 사회와 처음 접촉한 것이 이번 집수리였다. 어쩌면 희망을 놓고 살아왔는지도 모를 한 가정에 살아갈 힘을 주었다는 것 자체로 뿌듯한 일이다. 조합원들은 그 힘든 노동을 마치고 기울이는 술자리에서 다들 안타까움과 자부심 섞인 한마디씩을 했다.

“사실, 나는 집수리 오는 게 힘들다. 이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다.”

“이 가정은 희망씨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겠다. 다시 희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었는데,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몽클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이 어떤 가정에 살아 낼 용기를 주었다는 것에 자부심이 생겼다.”

희망씨는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각 지부의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지역연대를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딜라이브지부(옛 씨앤앰지부)가 노사사회공헌기금을 12년 동안 30억원 마련했고, 티브로드지부에서도 2014년에 3억원을 조성했다.

딜라이브비정규직지부·홈초이스지부·LG헬로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HCN지부 등 대부분 지부가 액수에 상관없이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희망연대본부는 기금조성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 의정부·남양주·전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 이주민, 복지사각지대 가정,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과 나눔을 통한 연대를 실천해 오고 있다. 희망씨가 전개하는 환경개선사업도 이 과정의 하나다. 노조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해당 조합원들이 참여해 매년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도 딜라이브지부 조합원과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조합원 16명이 이 가정의 집수리를 위해 참여했다.

혹자는 노동조합이 자기투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업장 안에서 나의 권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장 밖에서는 지역과 나눔하고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노동조합 활동이라면 너무 멋지지 않나?

머리로만 느끼지 않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노동조합 활동! 나누고 연대하는 것도 권력자들에게 선점당하지 않는 의미 있는 활동을 희망씨와 함께 펼쳐 나갈 노동조합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 ‘희망씨’ 덕분입니다\*

여민희

“은별아, 내 기억 속에 은별이 엄마 수미는 사랑이 가득하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지금도 네 엄마 수미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은별이와 동생들이 자라는 모습과 소식 덕분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서 고마워. 은별아,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은별이를 응원해. 쉽지 않은 길을 걷더라도 은별이를 응원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김수미의 동지였던 우리가 이젠 은별이의 동지야. 은별이에게 동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해.”

은별이 엄마 김수미는 15년 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서 6지부(부천권) 지부장과 총무부장을 맡아 함께 활동했던 동지입니다. 수미가 총무부장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은별이를 가끔씩 데리고 왔고 은별이는 사무실 한쪽에 둔 커다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안에서

\* 제2회 희망씨 노동자나눔연대공모전 대상 수상작

엄마를 기다리며 놀았습니다. 그렇게 암전하게 노는 은별이가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은별이를 떠올리며 가끔씩 미소 짓습니다.

은별이에겐 남동생 재민이가 있었죠. 육아로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둔 수미는 그 후로 쌍둥이 형제와 막내둥이를 출산했고 다섯 남매와 정신없이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다섯 남매라니……. 다들 믿기지 않아 했지만 “그래, 김수미라면 가능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기에 다섯 남매의 가족이 얼마나 즐겁게 지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뜸해졌을 때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했던 수미가 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미에게 암이 발견됐고 3기에, 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미는 누구보다 씩씩했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우리는 각자의 가슴 속에 수미를 묻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수미를 쫓 빼닮은 은별이와 동생들, 그리고 은별이 아빠만 남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은별이의 교복 비용을 지원하자는 한 동지의 제안으로 예전에 함께했던 노동조합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그때가 201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과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다섯 명의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전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2017년 11월 희망씨 아동청소년지원사업

에 은별이 다섯 남매가 추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던 은별이었지만 가정 형편상 사교육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희망씨에서 미술학원비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다 다섯 남매 건강지원비, 둘째 재민이 중학교 입학 교복비가 지원됐습니다. 희망씨 초창기였기에 부족한 학원비 일부는 우리가 모은 기금으로 보충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은별이네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함께했던 동지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희망씨를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의 일부는 우유업체 사장님, 미술학원 원장님의 후원도 받았습니다. 희망씨를 통해 마을도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은별이가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는데 그 기쁜 소식을 집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더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술학원을 그만뒀는데 상 탄 것을 아빠가 알게 되면 부담되고 속상해할까 봐 미술학원 원장님께만 자랑했습니다.

이후 은별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졸업하기까지 미술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씨는 여전히 은별이와 은별이 가족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씨는 다섯 남매의 다섯 꿈이 됐습니다.

은별이 가족 덕분에 희망씨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희망씨의 희망울타리사업과 네팔아동지원사업 등을 통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은별이 다섯 남매처럼 꿈을 꾸는 것을 봅니다. 주거개선사업과 자조모임지원 등을 통해 많은 성인들 또한 꿈을 이루고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별이의 꿈을 함께 응원했



고, 은별이 가족을 꾸준하게 지원하겠다는 바람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지원으로 제가 속한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이 지치고 고된 일상에서 마음을 터놓고 크게 웃을 수 있는 하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씨 안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여전히 함께 꾸는 꿈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는 여정에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 일을 희망씨가 하는 거야.

꿈을 꾸며 갖는 희망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를 희망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시혜가 아닌 연대로, 그 꿈을 응원하면서 함께 설렙니다.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씨 덕분입니다.

## “희망씨는 제2의 삶이죠” 미등록자녀 아버지 이야기

이은선

2020년 5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희망씨가 미등록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다.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 지역에 있는데 미등록자녀라서 공공기관인 센터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 희망씨는 문의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미등록자녀의 아버지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현재 그의 눈앞에 놓인 복합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논의했다.

아버님은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고 마트 안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했고, 그때 필리핀에서 온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한다. 두 분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에 빠졌고, 예쁜 두 자녀를 낳았다. 아버님은 자녀들이 커 갈수록 행복해질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행복을 가로막았다.



아내는 필리핀에서 한 차례 결혼한 이력이 있다. 그의 필리핀 남편은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완전히 사라졌고 한참 뒤에 지인을 통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필리핀은 이혼 성립이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돈이 들어가는 까닭에 서류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한다.

아내는 한국에서 낳은 자녀가 당연히 한국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을 줄 알았고 서류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어머니 국적을 따라 외국인 신분이었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비자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자녀들은 미등록인 채로 살았다.

또한 오래전 위암 치료와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아버님은 디스크 재발 때문에 검사를 했다가 우연히 혈액암이 발병한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최근 정밀검사로 임파선암 전이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님은 아내와 두 자녀 외에도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일용직으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던 아버님은 병환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한 달 뒤면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위기가정으로 인지한 희망씨는 지역의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을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자녀들의 학교 입학, 공공지원을 위해 국적취득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희망씨는 서둘렀다. 아이들의 국적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총동

원했다. 이주단체, 출입국 전문행정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의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를 3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적을 취득해 우리는 쾌재를 불렀다. 희망씨는 국적취득과 동시에 지역의 민간·공공 통합사례회의를 열어 이 가정의 해결방안을 지역과 함께 고민했다.

노력 끝에 아버님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받았다. 주거급여가 적용돼 빌딩 지하 쪽방에서 살다 쌍문동 다가구주택 지상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드디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가 마련됐다. 더불어 이사 간 집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어 첫째 아이 학교 통학 문제도 해결됐고, 둘째는 병설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이사를 한 뒤 어머니의 병환이 눈에 띄게 좋아져 화장실을 스스로 다닐 수 있게 됐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손이 가벼워진 아내도 한국어 공부를 하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아버님은 수급자로 인정돼 의료지원을 받으며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공공기관들은 각 영역을 담당하며 지원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는 전문요양사 지원을, 자녀들에게는 학교생활·교육과 심리정서 지원을, 아내에게는 한국어교육 가정방문 지원을, 아버지에게는 의료·주거·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다.

2020년 12월 오랜만에 해당 가정을 방문한 희망씨를, 몰라보게 건강해진 아버님께서 밝게 맞이해 주셨다. “희망씨는 아버님께 어떤 곳 인지” 여쭙 봤다.

아버님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희망씨는 저에게 제2의 삶이죠. 희망씨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다 같이 죽어야 하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가정을 도와 줄 곳은 없었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씨를 만났고 그래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얻었습니다. 제 자녀도, 어머니도, 아내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보자며 함께 동행해 주셨던 희망씨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도 이 감사함을 기억하고 사회에서 희망씨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키워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지역의 돌봄망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될 때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유연하게 펼칠 수 있는 희망씨의 강점과 희망씨가 그동안 관계 맺었던 광범위한 지역네트워크, 자원을 통해 이 가정은 정말 기적같이 변화했다.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해당 지역에는 긴급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TF팀이 구성됐고, 현재도 지역복지망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 일상의 작은 나눔의 행복\*

김종덕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매번 그렇지만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벨이 울리면 받을까 말까 고민한다. 고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기 때문이다. 일단 업무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네, 여보세요?”

“종덕 동지, 안녕하세요. 희망씨 \*\*\*\*국장입니다.”

“아, 네.”

갑자기 희망씨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당황했다. ‘희망씨가 뭐하는 곳이지?’ 순간 기억을 더듬었다. 그제야 생각났다. 당시 관악지회장 추천으로 희망씨 기부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 제1회 희망씨 노동자 나눔연대 공모전 연대상 수상작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수리하는 나눔연대를 하는데요. 관악지회장님이 김종덕 동지를 적극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경항없이 받은 전화라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전화 주신 ‘\*\*\*국장님’의 따뜻한 목소리는 평소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나에겐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희망씨’

우리 엘지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한창 파업할 때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았던 아주 고마운 단체이기에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일정이 정해지고 약속된 장소로 오전 일찍 나갔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토요일은 격주 휴무라 온전한 내 시간이었다. 봉사 활동은 학창시절에도 종종 했던 터라 그다지 거부감은 없었다. 비록 쉬는 토요일 작업복과 공구가방을 다시 챙겨야 하지만, 쉬는 날이라고 해서 마땅히 집에서 할 일도 없었고 해서 기분 좋게 나섰다.

모임 장소로 나가니 통신업계에서 일하시는 동지분들이 와 계셨다.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중년의 남자들이 모여 있으니 서먹서먹했다. ‘에라 모르겠다.’ 쭈뼛대며 중년 남자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희망씨 국장님이 오늘 작업은 어떤 작업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간단한 회의를 하고 각자 맡은 작업공간으로 투입됐다. 오늘 작업은 어느 가정집의 작은방에 있는 물건 정리와 전등 같은 전기배선 정리, 방문 손잡이 교체, 사용하지 않는 짐 정리 등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었다. 평소 집에서 전기배선 작업이나 전등·스위치 교체 정도는 손쉽게 해 왔던 터라 어려운 작업은 없었다.

나는 처음 참여했지만 벌써 여러 차례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 듯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고 낮가림이 있는 편이라 나서지는 못하고 그저 곁에서 보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만 했다. 나의 첫 나눔연대였다.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내 행동에 한숨만 절로 나왔다.

‘그래, 오늘은 분위기 파악이었어. 다음엔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또다시 일정이 잡혔고 지난번 만났던 동지들과 씩씩하게 인사를 나누고 작업공간으로 투입됐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작업 도중 중년 남자들과의 서먹함을 깨기 위해 옆 동지들과 서로 일하는 직장의 환경이나 노조 이야기를 나눴다. 작업하다 막히면 서로 상의해 가며 일하다 보니 금세 점심시간이 다 됐다.

함께 일한 동지들과 바닥에 앉아 함께 자장면·짜뽕을 비벼 가며 아이들 크는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작업도 즐겁고 시간도 금방 갔다. 매일 출근하며 보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릴 때와는 다른 즐거움을 느꼈다. 이렇게 씨앗 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니 내가 일하는 지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둘러보게 됐다.

희망씨에서 주관하는 여러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소극적인 나에겐 좀 더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였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아동센터에도 갔는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았다.

예전에 구로쪽 지역아동센터에 나눔연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센터장님이 희망연대노조 집회할 때 꼭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나눔연대를 다녀온 후 센터장님이 우리 지부 집회할 때 연대해 주셨다. 집회 현장에서 뵈니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 이게 연대의 참맛이구나' 하고 느꼈다.

이제는 집수리 나눔연대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동지들도 많이 만난다. 내가 변하고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한다는 증거다. 그 후에도 일하는 날이 겹치면 다른 동료와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여하려

고 노력했다. 씨앗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만난 다른 지부 동지들을 집회 현장에서도 종종 만난다. 그래서 동지, 동지 하는 듯하다.

내 아이들과 직장 동료, 후배들과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깨달은 좋은 계기였다. '씨앗 활동가'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자랑스럽고 스스로 나 자신을 대견하다고 격려한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만큼 참여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좋아지는 날이 오면 다시 나눔연대 현장으로 출동할 것이다.

##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의 가슴 뜨거워지는 연대이야기\*

손윤경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대부분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톡방이나 카페에서도 익명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에 심지어 이름도 잘 알지 못한다.

지난 5월 어느 날 경기지부 단톡방에 한 조합원의 다급한 글이 올라왔다. 배달 일을 하는 지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했는데 코로나19로 헌혈이 저조해 수술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였다.

글이 올라오자마자 조합원들이 어디서 헌혈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도와면 되는지 질문을 올렸다. 나도 글을 쓴 조합원과 통화해 정리된 내용을 카페와 단체문자로 알렸다. 그러자 곧 각 지역의 조합원들이

헌혈센터 방문 사진과 헌혈 중인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렸다.

건강상태로 인해 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들도 응원 메시지를 보내거나 갖고 있는 헌혈증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며 마음으로 함께 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언제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몇 시간 전 글을 올렸던 조합원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조합원들의 연대와 도움으로 다음 날 오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일로 너무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12시간의 긴 수술을 받은 라이더님은 모두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후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헌혈증을 모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헌혈을 200회 이상 한 조합원도 나타났고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는 방법도 공유되며, 건강하러 노력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연대의 경험 때문일까. 조합원들이 자신은 무엇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지 알려오기 시작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탑차를 가지고 있으니 김장배추를 나르는 일이라든지 하는 일이 필요할 때 연락을 달라고 했고, 어떤 분은 배달나눔 활동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나눔 활동이 필요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활동하는 지역들과 조합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 제2회 희망씨 노동자 나눔연대공모전 연대상 수상작



나눔연대는 내 존재 의미,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배달노동자를 향한 사회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조합원들이다. 분명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임에도 그렇다.

나눔연대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기도 하고, 배달나눔을 통해 자신의 직업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들이 쌓여 가면서 우리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자신의 일에, 또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더 나아가 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5년간 진행된 전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소감\*

박장오

저는 2017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으로 전임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전임활동을 시작하면서 희망씨 김은선 국장에게서 서울지역에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전주에서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니다. 지역 모임을 통해 희망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제안하고 각 지회 간부들과 1년여간 지역 모임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고 준비했습니다.

2018년 제가 속해 있던 전주센터 조합원 한 명이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망씨를 통해 도움을 받고, 가족캠프에도 참여하면서 힘들었던 조합원이 많은 힘을 얻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환경개선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전등 교체, 선 정리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한 적 없던 나눔연대를 해서인지 낯설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 제2회 희망씨 나눔연대공모전 연대상 수상작

몇 번의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일반 가정집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옥상 방수작업부터 도배, 장판·전등 교체 등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정집에 방문했을 때 신청자가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판 하시는 분이 늦은 데다 얹친 데 덮친다고 장마철이라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힘들게 시작한 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집안 내부가 깔끔하게 바뀌자 신청자께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참여했던 조합원들 역시 저랑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가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사전조사를 하러 방문했을 때 유독 어머니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당일 전등을 교체하고 전선을 정리했는데, 깨끗하게 바뀐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모습 자체가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어머니 표정은 밝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님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었습니다. 여기는 가구를 내다 버리느라 다른 곳보다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전에 미리 아버님이 정리를 해 주신 덕에 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좋아하겠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배우자와 헤어진 뒤 부모님께 얹혀살게 된 사연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안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고

내부도 허름했지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수리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철이 없어 보여서 앞으로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처음으로 1박2일 작업을 했던 곳입니다. 전날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전주지회 조합원들이 먼저 페인트 작업을 했고 다음날 도배와 장판 교체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도배는커녕 장판 교체 한번 하지 않았고 가구는 낡고 소파 천은 부스러졌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중에 급하게 중고가구를 알아봤지만 TV장식장만 구매해 교체하고, 소파와 안방 침대는 사지 못해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방이 깨끗해지고 책상도 갖게 된 아이들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고맙다며 아이가 쓴 손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아쉽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못하고 나왔던 적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조합원들을 부려 기분이 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전임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참 많았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을 하며 오히려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전주에서 진행한 나눔연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할 때 저희 환경개선사업 사진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진행했던 전주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됐으면 합니다.

## 도움에서 나눔으로\*

김영이

2016년 노동조합에서 커피머신을 사고, 어느 봄날 사무실을 찾은 조합원이 커피를 마시며 문득 한마디 했다.

“우리가 직접 키운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요? 네팔은 화학 비료가 없어 모든 게 유기농이니, 네팔에 커피농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생산된 커피를 우리 공무원노조가 사 준다면 그들에게는 자립의 기회가 되고, 우리는 좋은 커피를 마시고…….”

“음. 좋네요.”

“좋네요”라는 말과 함께 네팔에 커피나무 심으러 가는 모임이 결성됐다.

선진 노사문화 배우러 외국 가지 말고(시군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

\* 제1회 희망씨 노동자 나눔연대공모전 대상 수상작

이제는 우리 문화를 전파하러 가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할 만큼의 국력은 되니 2014년 지진으로 힘든 네팔에 커피농장을 만드는 일을 해보자고. 당연히 히말라야라는 달콤한 유혹의 옵션도 달았다.

우리의 제안에 혹한 10명이 모였다. 네팔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한 분도 있었고, 단지 공직생활 추억 하나 만들고 싶어 히말라야를 방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여행 준비와 커피 묘목 값을 모으는 일이 진행됐다.

5월의 딸기 하우스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딸기 주인조차 따는 것을 포기한 딸기 하우스에서 딸기를 따서 잼을 만들어 네팔 자립돕기라는 이름표를 달고 조합원들에게 팔았다. 당신이 사 준 딸기잼 1병이 네팔에 커피나무 10그루를 심을 수 있다는 우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과장된 ‘뽕’ 홍보와 함께. (실제 네팔에서 커피 묘목이 얼마 하는지 지금도 모른다.)

그러나 여행 준비는 쉽지 않았다. 네팔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히말라야, 그리고 2014년 지진뿐이었다. 다행히 아름다운재단에서 네팔 현지에 커피농장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커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직접 우리가 있는 산청까지 달려와 지진 후 네팔의 어려운 현지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들의 네팔 현지 커피농장 사업을 홍보(?)했다.

그러나 쉽게 성사될 것 같던 사업에 아름다운재단이 난색을 표했다.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였다. 일정 규모의 기업 연수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소규모 ‘방문’은 어렵다고 했다.

아름다운재단의 커피농장 방문은 우리의 방향과 달랐다. 더군다나 우리 꿈은 컷다. 네팔에 우리 산청군공무원노동조합의 커피농장을 만드는 것이지 단지 커피농장을 방문했다는 사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 준비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행팀 5명은 여행 목적을 바꾸기로 했다. 네팔 사정을 보고 커피농장을 만들 수 있는지 사전답사를 하러 가자, 이렇게 다시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네팔에 커피나무 묘목을 나눠주는 한국인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본 기억을 더듬어 그녀를 수소문했고, 그녀의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숙소 하나 정하고 출발한 11박12일의 네팔 돌기 여행은 2016년 11월 25일 시작됐다.

여행 시작은 중국 포장마차에서 양꼬치에 '칭다오'를 마시는 거였다. 설레는 여행 이야기는 덤이었다. 첫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네팔행 비행기에 몸을 신자 설렘은 걱정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여행이 얼마나 무모한지부터 정말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면 관심과 정성을 보내준 조합원들에게 뭐라 할 것인지, 괜히 "좋네요"라고 말해서 일을 키운 것은 아닌지 따위의 생각이 커졌다.

아무리 그래도 말도 통하지 않는 데다 '나마스떼'밖에 알지 못하는, 영어를 들으면 머리부터 아파지는 우리가 숙소 하나 정하고 길을 나서 다니, 그것도 목적은 무지막지하게 크게 잡고서 이게 도대체 있을 만한 일인가? 아무리 '땀땅에 헤딩'이라지만 이걸 콘크리트 바닥에 헤딩하는 것보다 더한 무모한 짓이었다.

이런저런 걱정은 많았지만 오랜 시간 외출과 여독으로 풀아떨어졌

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던 일행이 잠을 깨우며 "비행기 뒤쪽에 민주노총 분들이 계시던데 가서 인사나 하자"고 했다. 타항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두 알 것이다.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소속된 조직의 성원들이었다. 부끄럽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연맹이긴 하나 공무원들 특성상 '민주노총은 내 조직'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의 소속감은 없었다. 그러나 그때만큼 내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기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고 그들이 희망씨의 나눔여행단이라는 것과 포카라에 짓고 있는 노동자희망학교 이야기, 뽕뽕에 있는 작은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 계획 없이 목표만 쫓던 우리는 염치 불구하고 여행단에 끼어들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일이었다. 인원에 맞춰 빌린 차에 덩치도 작지 않은 우리 5명이 타자 모두 짐에 깔릴 지경이었는데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 줬다.)

네팔은 산악지역 특성상 대규모 농업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없어 젊은 노동력은 이주노동이나 용병으로 타국으로 나간다고 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없으니 경제발전이 더디다고 한다. 내가 경험 못한 한국의 60년대 정도(?)라고나 할까. 수도 카트만두에는 2014년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이 아직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기도 했다. 비포장도로로 네팔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비좁은 차를 타고 달려간 포카라 노동자희망학교는 히말라야 설산의 찬물이 흘러내리는 냇가에 위치해 있었다. 선생

님과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꽃목걸이를 걸어 주며 “나마스페” 하고 우리를 반겼다. 그들이 마련한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돼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내내 우리 곁을 맴돌며 관심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서 희망씨가 만든 기적을 보았다. 희망씨는 단지 배우는 학교를 지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그곳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다. 나눔(그들은 도움이 아니라 나눔이라고 했다)이 만들어 내는 기적이었다.

포카라에서 희망씨가 만든 기적을 봤다면 뽕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했다. 돌을 깨어 생계를 이어 가는 마을 뽕뽕. 아이들은 점심밥을 못 주는 학교 대신 히말라야 찬바람이 살을 핏귀는 강가에 부모를 따라간다고 했다. 희망씨가 지원하는 급식비로 점심을 지원하자 학교로 나온 아이들은 땃국물 절은 고사리손과 맨발을 하고 있었다. 함께 간 사람들이 아이들과 놀아 주는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는 것을 봐야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 여행이 뽕뽕학교에서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남은 여행 중 시간이 날 때마다 돌아가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얘기했고 논쟁했다. 그렇게 1차 네팔 여행은 끝이 났다. 1차 여행에서 커피나무를 심을 곳을 찾지는 못했지만 희망씨를 만나고, 신미고 동지들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만났다는 큰 소득을 얻었다.

돌아와 조합원들에게 여행 보고회를 진행했다. 2014년 지진 후 어려움에 처한 네팔의 사정과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를 전하며 후원자를 모집했다. 매월 일정액을 모금하는 조합원의 후원금이 통장에 조금씩 모였다. 사무실 커피머신 옆에는 저금통을 두고 후원금을 모았다. 네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자고 하면서, 네팔에 커피나무를 심고 네팔 유기농 커피를 마시자는 목적, 그래서 네팔의 자립을 돕자는 처음의 목적에서 조금은 비켜났지만 커 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어찌면 미래의 네팔을 건강하게 하는 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2019년 나눔여행에 참가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길을 내고 건물을 짓고 있는 네팔은 활기찼다. 그 무엇보다 뽕뽕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변해 있었다. 희망씨가 보내 준 단정한 교복으로 예쁘게 차려입고 우리를 반겨 주었다. 손잡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던 지난번 아이들이 아니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와 함께 놀아 주었다. 뽕뽕에 희망씨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우리는 두 번째 네팔 나눔여행으로 장래희망이 의사인 아홉 살 ‘아비스카르 마지’를 후원하게 됐다. 우리 계획은 수정됐다. ‘네팔 자립을 위해 커피나무를 심어 주겠다’에서 스스로 커피나무를 심을 아이들이 잘 커 갈 수 있도록 도움, 아니 나눔을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꿈꿔 본다.

학교를 졸업한 마지가 청년이 되어 커피농장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네팔로 오라고 초대하는 꿈을.

그때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말할 것이다. “네팔에 커피나무 심으러 갑시다”라고.



## 지원을 넘어 자립으로! 네팔과 함께하는 나눔연대\*

변다영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  
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진행되  
지 못한 네팔 나눔연대 여행이 3년  
만에 재개됐다. 공공운수노조 희망  
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에서 10명의 노동자들  
이 모였다. 높은 환율로 예년보다 여  
행경비가 두 배 이상 올랐지만 네팔  
아이들을 만나고 설산을 보기 위해  
여행에 함께했다. 3년 만의 여행이  
라 설렘도 두 배였다.



\* 매일노동뉴스 가치모아 연재

##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네팔 나눔연대 여행

희망씨는 여행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네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학용품과 노트북을 후원받고, 학교 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후원금도 모금했다. 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와 경기도콜센터지부  
조합원들, 성북지역 인디학교 선생님과 청소년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든 털모자도 잘 챙겼다.

특히 올해는 노회찬재단과 전태일재단이 후원하고, 화섬노조 봉제  
인지회 조합원들이 직접 제작한 교복과 체육복을 빨벗학교 아이들에  
게 전달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 빨벗 아이들을 위한 교복과  
체육복은 올해부터 4년간 화섬노조 봉제인지회에서 직접 제작해 주  
시겠다고 희망씨로 연락해 함께 준비했다. 이렇게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력과 연대로 모인 후원 선물들을 여덟 박스에 나눠 담고, 여행단은  
네팔로 출발했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후원 물품들을 판매용 상품으로 오해해  
물품 박스를 세관에 압수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일부  
비용을 내고 간신히 물품을 되찾아 첫 번째 학교인 포카라학교에 방  
문했다. 포카라학교는 희망연대본부가 딜라이브지부 사회공헌기금으  
로 2013년 설립했다. 현재까지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전액을 본  
부가 후원하고 있다. 2019년 네팔 정부에서 공립학교 인가를 받아, 예  
산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 3년 만에 만난 네팔 아이들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9시간을 달려 포카라에 도착했다. 포카라 학교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작은 손에 꽃송이를 들고 여행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먼 곳에서 달려온 여행단을 위해 학년별로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아이들의 장기자랑 후에는 여행단과 선생님들도 함께 춤췄다.

그리고 여행단이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 간 놀이키트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놀았다. 포카라 학교는 공립학교로 등록되면서 정부에서 시설개선 지원을 받고 있고, 올해 5월부터는 정식 교사가 배정됐다. 또한 네팔 포카라시와 비정부기구(NGO)가 협력해 학교마다 간호사 선생님을 파견하고 아이들의 건강관리와 위생교육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방문한 포카라학교는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행단은 트레킹을 위한 짐을 별도로 꾸리고 빨벗 아이들에게 나눠줄 간식을 사서 두 번째 학교인 빨벗 말등가 학교에 도착했다. 이 학교는 네팔 공립학교로 희망씨가 저금통 모금을 통해 2013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태양열 설치 등 각종 시설개선을 해 왔다.

2018년부터는 이 학교에서 3학년을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과 아동결연을 하고 있다. 학교는 여행단을 향한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한시라도 빨리 봉제인지회에서 제작한 새 교복과 체육복을 입혀 보고 싶었다. 짐을 풀고 한 명 한 명 체육복을 입히니 맞춤

옷처럼 너무 예쁘게 잘 맞았다.

교복과 체육복은 한 아이당 두 벌씩 제작돼 아이들이 여유롭게 입을 수 있다. 새 옷과 한국의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한 털모자를 머리에 쓴 아이들의 환한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이후에는 한국의 노동조합들과 결연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만났다. 2018년 처음 아동결연을 시작해 곧 5년 차를 지나며 어느새 25명이 21개 노동조합 지회나 단체들과 결연하고 있다. 그새 더욱 건강하고 밝아진 아이들, 그리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정들을 보며 아이들의 커 가는 꿈만큼 노동자들의 나눔과 연대의 마음도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 히말라야 산맥이 병풍처럼, 모하레단다(MOHARE DANDA)

이번 11월 나눔연대여행단은 역대급의 좋은 날씨 속에서 트레킹을 했다. 모습을 잘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 설산은 카트만두를 벗어난 직후부터 환영인사를 하듯 웅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날씨가 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여행 기간 내내 쾌청했다. 이번 트레킹은 모

하레단다(MOHARE DANDA)를 다녀오는 코스였다. 뿔뿔학교를 나와 지프차를 타고, 4시간반 정도를 달려 첫 번째 산장이 있는 알단다(ALDANDA)에 도착했다. 친절한 산장 주인은 한국에서 찾아온 여행단에게 직접 담근 동충하초(야차콤바) 약주를 내어주셨다.

다음 날 아침 산장 주변으로 웅장하게 펼쳐진 설산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했다. 3시간 정도 산길을 올라 도착한 모하레 단다는 해발 3천313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설산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다. 그리고 여행단의 발 아래에 구름바다가 펼쳐졌다. 모하레단다의 밤은 수많은 별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내렸다. 병풍처럼 드리워진 설산과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들은, 여행단을 따뜻하게 안아 주며 위로를 주는 것 같았다.

### 노동자가 제안하고 만드는 네팔연대, 자립을 꿈꾸다

네팔나눔연대여행은 2012년 희망연대본부 국제연대소모임 '아름연대'가 이주노조 활동을 하다 네팔로 귀환한 노동자들을 만나러 '네팔 여행'을 떠난 것이 계기가 돼 시작됐다. 이후 희망연대본부가 국제연대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로 희망씨가 네팔아동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네팔로 귀환한 노동자들도 자국에서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하러 떠나게 될 노동자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신미고'를 결

성해 활동하고 있다. 네팔아동지원사업은 ① 신미고와 함께 포카라지역 학교 설립과 운영 지원(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 노사사회공헌기금으로 학교를 건설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② 뿔뿔학교에 저금통 모금을 통한 급식비 지원과 시설개선 지원 ③ 뿔뿔학교 4학년 진학 대상 아동결연 ④ 노동자들과 함께 떠나는 네팔나눔연대여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포카라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정부 등록을 목표로 추진됐다. 2013년 네팔 노동조합과 학부모·희망연대본부가 뜻을 모아 학교를 설립했으며, 이후 운영 주체가 돼 끊임없이 정부에 공식 학교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19년 정부 공식 학교로 인가받았다. 2017년 나눔연대여행에 함께했던 서울 광진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광진주민연대 아기사랑후원회가 학부모 모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뿔뿔학교 역시 아동결연을 통해 가정의 생계비 지원까지 이어지며,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돌고 있다.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의 작은 날갯짓이 국내를 넘어 네팔까지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로 인해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마을에 활기를 돋우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네팔나눔연대여행은 함께한 노동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마주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준다. 위로와 힐링이 되는 시간! 네팔나눔연대여행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 딜라이브지부 유급 사회공헌시간 ‘털모자 뜨기’\*

이미경

나눔이란 무엇일까? 상대방을 위한 배려인지 나의 만족인지 고민이 먼저 든다. 그럼에도 함께 나눌 이들이 모여든다. 무엇을 어찌할지도 모르면서 일단은 ‘모여 보자’로 시작이 된 것 같다. 한 사람만의 능력치로는 어렵도 없음을 알지만 한 사람이 보태고 또 한 사람이 보태니 형체를 알 수 없는 벽참이라는 무언가가 온몸을 가득 채웠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장벽으로 3년간 랜선 소통으로만 만족해야 했던 네팔국제연대가 올해 드디어 여행단을 꾸리고 제 모습을 찾았다. 3년 전 네팔을 다녀왔던 터라 올해도 꼭 함께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다.

딜라이브지부는 단체협약에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유급 사회공헌시간을 부여하는 소중한 내용이 있다.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나

눔을 통해 연대하자는 취지다.

네팔 아동들에게 매년 보낼 물품을 모집하고 나눔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특별히 털모자 뜨기를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자신은 없었지만 함께하겠다고 겁도 없이 털럭 약속해 버렸다.

시간은 흘러 흘러 약속한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엉킬 즈음 함께해 줄 동지들이 들어섰다. 교육장 공기는 어색함이란 그 무언가로 가득하다. 이를 어찌나. 나의 마음도 몸도 말도 어눌해진다.

그럼에도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공감하고 나눔의 첫발을 내디딘다. 노동조합이라는 한 테두리에 있지만 늘 만남은 어색하다. 서로 소통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눈빛들로 아는 이들과 대화가 이어진다.

“저는 잘 못해요”라는 말로 털모자 뜨기가 시작됐다.

그 분위기를 모아 내는 작업의 첫발을 내딛고 모두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본인에게 간택된 실과 바늘을 “널 어찌하니” 하는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그럴듯한 강사도 없이 그저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시작했다.

쉬워 보였던 작은 모자 하나 만드는 데 온 마음을 실어 뜨고 풀고를 반복 또 반복, 첫 코를 잡는 것부터 난항이다. 코의 크기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 제2회 희망씨 노동자 나눔연대공모전 연대상 수상작

“왜 저는 단의 크기가 다 다른 걸까요?”

“왜 이 실은 끊어지는 건가요?”

“어디가 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질문과 고민이 넘쳐 났다. 예뻐던 실은 결국 쓸모가 없어지고 결국은 실리를 선택한다.

그럼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저 먼 나라 아이들을 생각했다. 포기하지 않고 묻고 또 물으며 자신과의 투쟁을 계속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자신들의 능력치에 스스로 비관하는 이, 그 모습에 용기를 주는 이, 무엇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에 집중을 하는 이. 예전 우리네 어머니들이 해 주셨던 코바늘뜨기가 이리 어려운 건지 몰랐다는 남성 동지들은 배우는 건 안 되겠다며 청소며 정리를 돕고 차도 내어주었다. 본인의 가족들에게 털모자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던 말들을 반성했다. 모든 것은 다 누군가의 거룩한 정성이라며 껄껄 웃는다.

미완의 작품들을 보고 어찌 됐든 완성해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다.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오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급기야 집에 가서 완성해 보내주겠다는 우리 열성 동지들…….

네팔 아들에게 잘 어울릴까, 너무 못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만 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로 가득했다.

네팔여행단을 통해 아이들이 그 정성들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참여했던 동지들 모두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알아 가고 헤어짐에 아쉬워했다.

이 작은 실천이 연대이고 소통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대한 그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연대의 시작은 모이고 나누는 것, 그리고 다음의 만남이 즐거워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어느 현장에서 만나도 쌓이고 모인 나눔들이 서로의 교집합이 되어 줄 수 있음이다.

노동자의 작은 실천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배려가 되고 미소 짓게 한다. 처음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어색함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그럼에도 모이면 늘 그렇듯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국 한 덩어리가 된다. 나의 작은 보탬이 누군가에게 격려이자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니 빙그레 웃음이 지어진다.



## 나를 바꾸어 준 희망씨\*

박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삼촌과 함께 희망씨 활동을 했다. 텃밭 가꾸기, 아버지학교 등 정말 많은 곳을 삼촌과 다녔다. 사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과 오는데 나만 삼촌 조카 사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때 당시 삼촌네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고, 우리 가족의 상황을 파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자격지심이 심했던 것 같다. 모두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안쓰럽게 본다는 생각에 날이 선 상태로 지내던 시기였다. 배려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나 스스로를 깎아내렸다.

희망씨 활동은 여러 가지를 바꿔 주었다.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봉사 활동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삼촌은 나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봉사시간 채워야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나섰다. 봉사를 시작한 첫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배정받은 가정 집수리는, 나중에 우리끼리 평가하면서 확인했지만, 정말 힘들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체력을 다 써 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지

\* 제2회 희망씨 노동자 나눔연대공모전 나눔상 수상작

만 나는 집수리 활동 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다. 그때 기분이 매우 좋아서 나는 그 뒤로도 삼촌을 따라 정말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출발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 비중 있는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순간에 진심이었고 정말 열심히 활동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배려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 봉사의 이유를 알게 됐고, 그 덕에 진로를 정했다. 그전에는 관심 없었던 사회복지 분야에 흥미가 생겼다. 나는 사회복지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진로를 바꾸지 않았다. 꾸준히 사회복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준비를 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나는 지금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이 됐다. 학과 활동으로 봉사를 하며 또다시 성취감을 느낀다. 그때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바라던 공부를 드디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뿌듯하다. 이론 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듣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봉사활동은 그냥 남을 돕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생각했다. 희망씨는 봉사활동이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몰랐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다. 누구나처럼 삶을 살도록,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도록 차별을 없애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받은 충격은 컸다. 지금 하는 공부가 사

실 많이 어렵다. 희망씨 활동을 하다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과연 이분들처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름만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회 복지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한다. 바람의 크기만큼 더 어렵게 느껴진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사회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은 많은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현재도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가 발전한 덕분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사는 제도와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의 제도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한다. 희망씨 활동을 통해 이런 상황을 직접 보고 들었다. 나는 빈틈을 채우는 복지를 하고 싶다. 내가 받은 만큼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물론 정말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무 큰 꿈으로 느껴져 과연 이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희망씨 활동을 하며 행동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배웠다.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하는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키는 행위이고 나의 권리는 당연히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면 마음가짐과 생각도 지금 내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분들처럼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꾸준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갖고 있다. 앞으로 희망씨와 함께 많은 것을 배우겠다.

## 희망씨에 입사해 보니 어떠니?

박예나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보육원 교사가 되고 싶었다. 보육원 채용공고에 집중하며 이직 준비를 했다. 보육원 외에 다른 공고는 클릭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채용공고만 쳐다봤는데 문득 다른 제목이 눈에 띄었다. “함께 ~하고 나아갈 OO분을 모집합니다.” 색다른 느낌, 궁금해 클릭해 보고 싶어졌다. 결국 클릭!

정형화된 것들 속에 피어 있는 희망씨 채용공고는 뭔가 함께 성장하고 펼쳐 나가자고 제안하는 느낌이었다. 내용도 제목과 같았다. 오히려 더 따뜻했다. 함께 성장하고 희망씨를 만들어 가자고 손을 붙잡아 끌었다.

나는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게 많은 곳이 좋다. 정형화한 틀이 없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만들어 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그렇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장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희망씨 채용공고가 와닿았다. 마음이 동했다. 꼭 입사하고 싶었다. 홈페이지·페이스북을 보며 희망씨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았다.

국내·국외 사업을 하는 NGO단체인가? 그런데 노동인권교육은 또 뭐지? 알 듯 말 듯 어렵기도 했지만, 국내 사업뿐 아니라 국외 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나에게 희망씨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봤을 때 깔끔하고 잘 다듬어진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간미가 느껴졌다. 미션과 비전, 활동 원칙이 멋있었다. 경쟁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시혜가 아닌 나눔, 봉사가 아닌 연대, 기부가 아닌 참여. 기관의 마인드가 좋아 딱 내 스타일이였다.

그날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전형에도 없는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었다. 그만큼 꼭 희망씨의 일원이 돼서 근무하고 싶었다.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2일이 지났을까. 한 분이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서류에 합격했으니 면접 보러 올 수 있냐고 전화를 주셨다. 채용 공고에서도 친절함이 푹푹 떨어졌는데 실제 목소리에서도 친절함이 넘쳐 났다. 기쁘게 “네!”라고 대답하고 면접 준비 시작!

막상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 ‘노동조합에 이해가 부족한 나를 뽑아 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사실 철도노조 파업, TV에서 빨간 머리띠 두르고 투쟁하던 모습을 보며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나로서는 면접 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이때 동생이 “언니 왜 노동조합 사람들이 빨간띠를 두르고 투쟁한다고 생각해?” 하고 물었다.

“임금 올려 달라는 것 아니야?”

내 대답에 동생의 설명은 달랐다.

“임금도 임금이지만 힘든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하는 거야.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게 모두 진실은 아니야. 언론은 기업에 유리하게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보이게 하기도 해.”

실제로 면접에서 이사장께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거짓말은 여전히 못했다. 언론에서 본 노조 모습과 철도파업으로 출근길, 등굣길에 늦었던 생각에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래도 희망씨에 입사하고 싶어서 희망씨를 찾아보고 노동조합을 알아보다 보니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희망씨에 입사했다. 희망씨가 지향하는 가치, 사업내용을 교육받으며 더욱 빠져들었다. 일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곳,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직장, 수평적 조직구조로 모든 것을 협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 희망씨다.

희망씨는 비영리단체로 업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기에 운영과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 안정적인 직종에서 일하고 싶어서 의류계통에서 일하다 대학교에 다시 입학해 사회복지를 전공했건만 다시 고용불안을 느껴야 한다니……. 조금은 혼란스럽고 걱정이 됐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다. 임금과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가 희망씨를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희망씨와 함께 성장하기로 다짐했다. 그 성장을 지지해 주고 함께해 줄 사람들이 옆에 있기에 용기 낼 수 있었다.

그간 겪은 여러 조직에서 자율성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곤 수직적으로 누르며 상사가 원하는 것을 강요한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왜 아랫사람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걸까?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업무역량이 향상되기 어려운 것일까?

희망씨에 와서 이 의문은 완전히 풀렸다. 자율성이 보장됐을 때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낼 때 더욱 다양한 생각이 모여 구체적인 상을 그릴 수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문화가 상근자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희망씨의 조직문화, 지향가치를 널리 알려 더불어 사는 삶,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희망씨가 너무 좋다고 노래를 불렀다. 주변에서는 그러다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희망씨 상근자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희망씨에 입사한 지 1년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업무를 하며 힘든 시간도 있었고, 생각의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나의 마음은 입사 초기와 지금이 같다. 사람들에게 희망씨를 널리 알려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것!

그러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해이해지는 나를 다잡고 나아가기 위해 움직임을 시작한다.

## Chapter 03

### 부록







## 희망씨 10년의 역사

변다영

### 1. 2014~2016년 모색기: 희망의 씨앗을 심다

2013년 11월 5일 사단법인 희망씨를 설립하고, 2014년 1월 서울시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2014년부터 본격적인 나눔연대 법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아동청소년사업을 중심으로 희망씨의 정체성에 따른 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했다. 지역에서는 노동인권사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과정 사업과 아동인권실태조사 등을 펼쳤으며, 가족캠프와 아버지학교 등 가족 중심 사업을 노동조합 안에서 진행했다. 또한 희망씨의 대표사업인 희망울타리(국내 위기아동지원사업) 사업에 대한 내용 마련 및 사업 등을 논의했으며, 2016년부터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네팔아동청소년학교보내기 사업의 실무를 이관 받았다.

#### 2013년

- 9월 13일 희망씨 발기인대회
- 11월 5일 설립 총회. 최유홍 초대이사장 취임

#### 2014년

- 성동·광진지역 아동인권실태조사 진행
- 노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복지교사, 구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강서지역자활센터 방과후 청소년 공부방 노동인권교육 및 성동·광진지역노동인권활동가



양성교육 등 노동인권교육사업 활발히 진행

### 2015년

- 노동인권사업 전개: 노원·강북·송파지역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교육 진행,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진행, 희망연대본부 조합원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학교 진행 등(~2022년)
- 가족캠프·아버지학교·발달장애가족지원사업 등 가족지원사업 진행
- 네팔 지진피해 민중 돕기 사업 진행
- 성동·광진지역 찾아가는 부모 교육 및 부모워크숍 진행
- 서울시 공정일터사업 명상 수련 및 학습지교사 힐링캠프 주관

### 2016년

- 청소년 노동인권 중장기 교안개발 및 교육 진행
- 희망씨·희망연대본부 서울시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사업 진행
- 희망울타리사업 모색: 교복지원, 위기가동지원, 위기가정지원사업 등
- 비정규 노동자 가족캠프·아버지학교·성동광진지역 찾아가는 부모교육 진행
- 네팔 노동자 국제연대워크숍 및 네팔나눔연대여행 진행

## 2. 2017~2019년 안정기: 희망의 씨앗을 틔우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희망씨의 대표사업들이 자리매김하며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 희망울타리(국내위기가동지원)사업이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점점 사업의 갈래가 다양해졌으며, 네팔 사업은 다양한 노동조합과 여러 지역에서 아동결연 및 나눔연대여행의 참여가 커졌다. 희망씨만의 색깔을 가진 사업들이 생겨나고 실천되면서 노동자가 나눔의 주체라는 희망씨의 고유 특성을 안정적으로 사업에 녹이는 시기였다.

### 2017년

- 희망울타리사업 본격화: 비정규노동자자녀 교복지원, 서울지역 청소년 생리대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위기가정 교육문화지원 및 건강지원사업
- 가족지원사업 활발: 비정규노동자가족캠프·아버지학교 매년 개최
- 네팔 사업 참여 확대: 네팔 사업 보고대회, 네팔나눔연대여행
-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노동인권 사업 모색: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속, 청소년노동인권동아리 주관

### 2018년

- 희망울타리 사업 안정화: 장애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비정규노동자 자녀 교복지원사업, 희망울타리(국내위기가동지원사업) 선정단 운영, 서울뿐만 아니라 전 주권역 환경개선사업 시행
- 가족지원사업 지속 : 비정규 노동자 가족캠프, 비정규 노동자 아버지학교
- 네팔나눔연대사업 확장: 네팔 포카라학교 도서실 설립 및 화장실 신축 지원, 네팔 뽕밭학교 사위시설 개선 및 태양열 설치비 지원, 네팔나눔연대여행(4월·11월), 네팔 뽕밭학교 아동결연 시범사업 시작
- 용산지역 노동인권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 희망씨 수어동아리 운영

### 2019년

- 희망울타리 사업 안정적 확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권까지 확장,
- 가족캠프, 아버지학교에 이어 부모강좌 진행
- 생리대지원사업을 넘어 서울시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결합 및 활동
- 노동인권사업 활발히 전개: 지역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노동인권캠프 주관

- 네팔아동결연사업, 네팔 뽕밭학교 교복지원 진행, 네팔나눔연대여행 최대인원 참가
- 희망씨 회원강좌(마크라메, 타로, 글쓰기)

### 3. 2020~2023년 확장기: 희망의 씨앗이 퍼지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희망씨 사업은 활발하게 이어졌다. 시기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민간영역에서 돌봄의 부재가 커지고,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며 지원사업과 연대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 직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청소년들과의 접점을 넓혀 가고 있다. 산재가족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산재 노동자 가족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여러 노동조합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희망씨 정체성을 확립했다. 더불어 노동조합과 지역과 청소년을 잇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공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2020년

- 청소년 교복지원을 입학지원사업으로 확대, 생리대지원, 환경개선, 위기가정지원 등 활발히 전개
- 코로나로 인한 특별 지원사업 진행: 대구지역 코로나19 모금운동, 네팔 뽕밭 말동가 코로나19 쌀 긴급지원 모금운동(2회), 코로나19 노동자 나눔사업(마스크줄 만들기)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사회연대협약 체결: 장애 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진행
- 비정규 노동자 힐링강좌 및 부모 소통강좌, 희망씨 회원강좌(마크라메, 타로) 진행
- 기존 가족캠ป์ 등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가족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

#### 2021년

- 기존의 희망울타리 사업을 희망키움사업과 분리하면서 청소년 직접사업의 영역을 넓힘
- 민주노총 서울본부 자립청년지원사업 진행
- 공공상생연대기금 지원으로, 산재노동자가족지원사업 진행 및 토론회개최
- 미안마 긴급 모금운동
- 희망씨 공간마련을 위한 벽돌기금 모금사업 진행
- 네팔 비대면 온라인 여행

#### 2022년

- 희망씨 공간마련사업 본격 전개
- 희망씨 발전전략위원회 위촉
- 희망씨 청소년 예술가 전시회 개최
- 화성식품노조 봉제인지회-봉제인공제회 뽕밭지역 교복제작(향후 4년간 지원하기로 함)
-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금속노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사단법인 희망씨가 생활문화연대/나눔연대 협약 체결
- 코로나로 2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네팔나눔연대여행 재개

## Q&A로 맛보는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Q1.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사업을 막상 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뜻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연대사업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를 실행한 노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지,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 충분히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모색과 추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토론·사례발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나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단법인 희망씨에 요청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간부·조합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결단위 결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첫 출발은

집행부가 하지만 사업을 확고히 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간부와 조합원의 공감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한 노동조합은 조합원 교육과 토론, 어렵다면 간부 교육과 토론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의원대회·총회 등 각종 의결단위를 통해 사업과 예산을 결의해 향후 지도부가 누가 되든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이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지 않을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의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담당자(혹은 담당 부서)를 세웁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과정이 또한 중요합니다. 지역 조사를 통해 어떤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복지단체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각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향과 가치는 무엇인지 조사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단위가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사단법인 희망씨가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노동조합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씨처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들과 사회연대사업을 초기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도 사회연대사업을 진행하는 TIP입니다.

사업단계	내용	주요 사업
1단계	모색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사업 의미와 가치, 사례 수집 및 검토</li> <li>•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방안 마련</li> <li>• 사업계획 초안 수립</li> </ul>
2단계	공감과 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부·조합원과 소통과 공감(교육·토론·의견수렴)</li> <li>• 사업과 예산 의결단위 결의(대의원대회·총회)</li> </ul>
3단계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혹은 담당 부서) 선임</li> <li>• 1년 차 사업 실행</li> </ul>
4단계	평가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와 보완, 개선방안 마련</li> <li>• 사업 조정 내지 강화(확대·확산)</li> </ul>

Q2. 조합원 참여가 중요할 텐데요. 조합원 참여를 끌어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든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뜻을 가진 일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참여하기가 어렵지 한 번만 참여하는 조합원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금 모금과 후원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경기북부지역 어르신 가정에 순간온수기 지원사업을 하며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노동조합이 그동안 너무 울타리 안에만 있었구나.

이렇게 지역과 함께 나누는 것이 노동조합이 할 일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화섬식품노조 봉제인지회는 네팔아동 학교보내기 사업에 아이들 교복을 제작하는 봉제기술 재능기부를 통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가정에 도시락 배달과 간식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본인들이 속한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참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업무와 연관지어 사업을 기획하거나 조합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생활문화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들이 좋아하는 것, 일과 생활은 어떤지, 어떤 나눔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조사하면 도움이 됩니다.

Q3. 사회연대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중기적 사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도부 교체, 투쟁 등 노동조합의 특수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조 내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규정을 제정

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담당자(담당 부서)를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결단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없던 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희망철도재단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책임성 있는 재단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현직 간부와 '열심조합원'의 공감을 만들고 사회연대사업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면 중단되는 일 없이 중장기적 사업을 꾸준히 이뤄 낼 수 있습니다.

■ Q4. 사회연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노사 임단협 과정에 사회공헌(연대)기금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동조합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금운용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배제되거나 최소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노동조합이 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협에서 확보한 기금은 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노사관계가 악화될 때는 기금 출연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회(대의원대회)를 통해 연대기금 조성을 안건으로 통

과시키고 집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노동조합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결의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조직적 논의와 의결 과정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조합원 급여 '끝전떼기'나 1인당 일정 수준의 연대기금 조성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합원의 자발적 모금 방식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특정 사업 시기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됩니다. 일정 기간 모금을 진행하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사출연 재단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 독자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규모가 있는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있다 보니 예산 경직성이 나타나기 쉽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원(분배)단체 성격으로 많이 집행되는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 Q5. 노동조합이 지역단체와 함께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조합원 욕구 조사를 진행해서 조합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목록화합니다.

지역 조사를 통해 지역의 단체를 파악합니다. 지역 조사를 할 경우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희망씨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에서 목록화한 사업 단위들과 미팅을 합니다.

사업을 고민하는 시기부터 협력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함께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6. 최근 노동조합들이 사회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혜적 관점 아닌가요.

그런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그런 뜻으로 시작하는 노동조합도 존재합니다. 사회연대사업은 시혜적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태일의 풀빵나눔 정신을 실현하는 일상의 계급실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풀빵을 나누며 어린 여공들과 삶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자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사회연대사업은 바로 전태일 열사의 풀빵나눔 정신을 일상의 노조 활동 속에서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담벼락에 갇혀 '내 것, 우리 것' 중심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는 것에서 사업장 밖 노동자, 지역주민에게 시선을 향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조합과 점점조차 형성할 수 없는 다수의 노동자,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조직된 노동자들이 실천하고 진전시키자는 겁니다. 조직된 노동자와 노조 밖 노동자, 다양한 지역주민, 아동청소년이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고 존중하며 동질감·연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나눔과 연대는 노동조합의 왜곡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지와 연대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상호 간에 나눔과 연대지지는 각자의 처지와 조건, 부분과 지역을 넘은 통 큰 연대, 큰 흐름 형성을 통해 또 다른 세상, 대안 세상을 만드는 힘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 지역을 만난 노동

## 희망씨 10년의 기록

초판 1쇄 인쇄 2023년 11월 3일

**엮은이** 사단법인 희망씨

**펴낸이** 한계희

**펴낸곳** (주)매일노동뉴스

**디자인** 김선영·김효정

**등록** 제2008-62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6길 15, 3층(서교동, 동호빌딩)

**전화** 02-364-6900

**팩스** 02-364-6901

**홈페이지** [www.labortoday.co.kr](http://www.labortoday.co.kr)

**이메일** [book@labortoday.co.kr](mailto:book@labortoday.co.kr)

**ISBN** 978-89-97205-57-8

**값** 18,000원

이 책의 판권은 (주)매일노동뉴스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와 전부를 무단 게재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